백두-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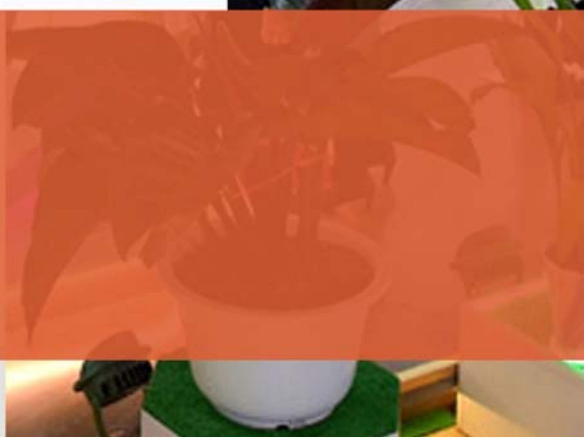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주체112(2023) 3
http://www.paekdu-hanna.com











평성대동강 피복공장

평안남도 평성시에 자리잡고 있는 평성대동강피복공장은 주체50(1961)녀 6월에 창립되였다.

공장의 연건축면적은 7200여평방메터이고 수백대의 현대적인 재봉 및 재단설비드을 가지고있다.

제품

겨울솜옷, 등산복, 잠바옷, 어린이달린옷 등 수십종의 피복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제품들은 질이 좋아 도적인 인민소비품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으며 여러 나라들에도 수출되고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백두-한나

PAEKDU-HANNA

조국소식
CHAOXIANXIAOXI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중국소식
zhongguoxiaoxi

국제단신
guojiduanxin

상식
changshi

앞표지:
대성산표
아이스크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숭고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농촌진흥의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자주, 자립, 자위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엄혹한 형세를 타개하며 새 승리에로 이끄는 오늘의 혁명투쟁은 전체 인민이 부럼없이 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반드시 건설하기 위한 행정에서 새로운 변화발전에로 나아가는 미증유의 거창한 위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미래를 철두철미 우리 식, 우리 힘으로 당겨가는 당중앙은 력사적인 주체110(2021)년 12월전원회의에서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국가부흥의 웅대한 경제발전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목적지향적이며 단계적인 투쟁을 확신성있게 령도하고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인 2022년도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농업생산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과업들과 전망목표들, 국가경제발전의 현 단계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요하는 당면과업들과 실천방도들을 더욱 심화시켜 해결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토의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강력히 촉진하게 될 투쟁지침을 책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2(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내각, 성, 중앙기관, 도, 시, 군급지도적기관 일군들, 농업부문과 관계부문, 단위의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오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활동으로 우리 당을 불패의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사회주의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줄기차게 열어나가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해당 성원들로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토의사업목적에 대하여 밝히시고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행의 첫해 사업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가까운 년간에 농업생산을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농촌의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토대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농업발전에 부정적작용을 하는 내적요인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해소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로부터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농사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주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여 해당한 방책을 도출하며 올해 농사와 전망적인 농업발전토대를 닦기 위한 절실하고도 필수적인 과업

과 방도적문제들을 다시금 명백히 확정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전원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본 전원회의가 농업발전의 전망을 확고히 열어놓는데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일련의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2.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3.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4. 조직문제

상정된 의정들은 전원일치로 승인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토의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2022 년도 사업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의 농촌발전전략실행의 첫해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시정, 극복되여야 할 편향 및 교훈들이 다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상세히 지적되였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토론을 제기하였으며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이 서면토론을 제출하였다.

전원회의는 보고와 토론들을 청취, 분석하고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우리 당은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문제로 중시하고 그 옳바른 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구상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의 달성은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므로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지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력사적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농촌혁명강령은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이후 변천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의 개변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과 점령해야 할 목표들을 명백히 밝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로 변모되는 농촌, 선진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결론은 현 단계의 투쟁에서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다시금 제기하고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을 완벽하게 실행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 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와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기본목적이 언급되고 주되는 농업발전목표와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치는것을 현시기 농업의 안정적발전을 담보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내세우고 올해에 계획된 관개공사를 강력히 추진하며 5 개년계획기간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에 현대성과 선진성을 부여하는데서 제일 절실하고 효과적인 새롭고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며 농기계부문을 혁신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사는 간석지개간과 경지면적을 늘이는것이다.

농업위원회와 농업연구원, 기상수문국이 맡은 역할을 책임적으로 하며 과학연구단위들을 첨단기지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과학기술발전

을 위한 토대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을 박력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은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개선을 가져올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면서 농업생산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시행방도들을 밝히였다.

전국적인 농업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농사지도에서 편파성을 극복하고 전반을 책임지는 균형성을 보장하는데 주목을 돌리며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는것이 중요한 농업생산지도원칙으로 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도, 시, 군의 지도기관들과 모든 농장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당 제8차대회 결정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현대적인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고 전국적인 판도에서 농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았으며 이것은 농촌진흥의 세기적변혁을 안아오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귀중한 발판으로, 밑천으로 된다.

결론에서는 올해에 농촌건설을 더욱 확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과 시, 군들에서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고 완강히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과업들이 제시되였다.

농촌발전의 방대한 전망목표를 달성하자면 결정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농촌당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에 강력한 령도체계가 서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농촌혁명의 기치높이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투쟁방략들이 집대성된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결론은 전체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심원한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일관된 **김정은**동지의 결론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거창한 공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한 변혁의 무기로, 우리의 리상과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으로 충만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위대한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문제를 주요의정으로 취급하는 의도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부문과 단위들의 계획수행과정에 이룩되고있는 긍정적인 변화들과 편향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일단 세워진 인민경제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경제부문 일군들이 계획수행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나타날수 있는 난점들을 예견하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면서 완강한 노력을 기울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조직력과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당사업을 당정책집행에로 철저히 지향복종시켜 올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검증받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반영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내각총리 김덕훈동지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나라의 재정토대와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은행사업을 개선하며 과학적인 국가금융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재정적으

로 담보하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에서 제시하신 농촌발전방략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가일층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8 개 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력사적인 결론의 기본사상에 따라 관련문제들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한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의견들이 기탄없이 제기되였으며 진지한 토의과정을 거쳐 과학적인 대책안, 실현가능성이 철저히 검토된 실속있는 작전안들이 수립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농업생산과 경제건설의 근본적인 변혁, 실제적인 변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목표와 수행방도들이 반영된 결정서초안을 최종심의하고 전원회의의 승인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위한 발전전망적인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문제도 결정서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 전원회의 결정서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김성준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최동명동지, 안금철동지, 최근영동지, 정명도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다.

김광운동지, 장영철동지, 선우영혁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최동명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정부기관의 간부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안금철동지를 금속공업상으로, 최근영동를 중앙재판소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페회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 전원회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2 대분야인 농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을 책정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시킬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촌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며 방조하는것이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원칙들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무겁게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도상에 가로놓인 장애들을 타개하는데서 투쟁의 기치, 전진의 기수가 되여 맡은 책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페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위대한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도약의 리정표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정신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백절불굴하는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와 전진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고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 월 9 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신 후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실태와 군부대의 중요작전임무행동질서 및 무기체계운용능력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투철한 대적의지, 견결한 투쟁관점을 지니고 항상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고있을뿐 아니라 맡겨진 중요한 군사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작전능력을 부단히 완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중요요소들과 직속구분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전쟁준비실태와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서부전선방면의 적작전비행장을 담당하고있는 군부대관하 제 8 화력습격중대의 실전대응태세를 판정검열하시였다.

화력습격훈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관하였다.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준동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확실하고 면밀한 림전태세에서 타격임무수행능력을 련마해온 화력습격중대는 적작전비행장의 주요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서해상의 목표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대응능력을 자신감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화성포병들이 실전에 대응할수 있게 위력적으로 엄격히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검열훈련결과는 군대는 언제든지 싸울수 있게 준비되여야 하고 말보다 실제적인 행동에 책임적이여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과 명백하고 실천적이며 드팀없는 우리의 군사행동의지를 똑똑히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최근 들어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적들의 각종 전쟁준비책동에 항상 각성하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부대가 맡고있는 작전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피력하시면서 관하 화력습격구분대들이 각이한 정황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실전가상훈련들을 다각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감으로써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2 대임무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부대안의 전체 전투원들은 강력한 실전태세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가 선정한 한계를 넘는 순간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의지로 들끓고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 진행

온 나라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가 제시한 결정관철에 총매진하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 지휘관들이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주요전역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강위력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요정치군사활동방향들과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우리 당이 사회주의위업실현에서 선결적이며 전략적인 최중대사로 내세운 농촌문제해결의 중요성과 현재의 농촌건설진행실태를 다시금 확인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목표가 뚜렷이 제시된데 맞게 이를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를 토의사업의 핵심사항으로 제기하였다.

확대회의는 우리 당이 전망적으로 설계하고 목적지향적인 투쟁으로 인도하고있는 농촌진흥과 지방건설, 사회주의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하였으며 그 집행과 관련한 조직기구적대책과 병력리용방안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조치들이 토의결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놓인 주객관적형세를 개괄분석하시면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며 전면적국가부흥의 거창한 위업을 추진해나가는 오늘의 창조대전은 당의 웅대한 실천강령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해온 우리 인민군대가 더욱 전진적이고 더욱 격동적인 투쟁으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그려보는 리상을 눈앞의 현실로 안겨주기 위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경제발전의 성스러운 전구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마땅히 투쟁의 주체가 되고 본보기가 되여 제시된 단계별목표들을 무조건 결사관철함으로써 한해 또 한해 온 나라가 반기는 부흥의 실체를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부강조국건설의 맨 앞장에 인민군대를 또다시 세워주신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격동속에 받아안으며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맡겨진 중대한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부흥실현을 위한 웅대한 변혁의 목표들을 드팀없이 점령해갈 철석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더욱 명백히 하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천의 보폭을 크게 내짚은 의의깊은 조치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련포온실농장운영에 필요한 륜전기재들과 설비들을 선물로 보내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실증하며 대규모의 온실남새생산기지,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실체로 훌륭히 일떠선 련포온실농장에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이 끝없이 흘러넘치고있다.

나라의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몸소 건설부지를 확정해주시고 착공의 첫삽도 뜨시면서 련포지구에 희한한 온실바다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남새생산의 집약화, 공업화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륜전기재들과 많은 설비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에는 련포온실농장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보배농장, 애국농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련포온실농장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0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정남동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동철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련포온실농장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리정남동지가 하였다.

그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위력한 실천방략을 받들고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농장의 관리운영에 절실한 은정어린 선물들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헌신분투함으로써 온실남새생산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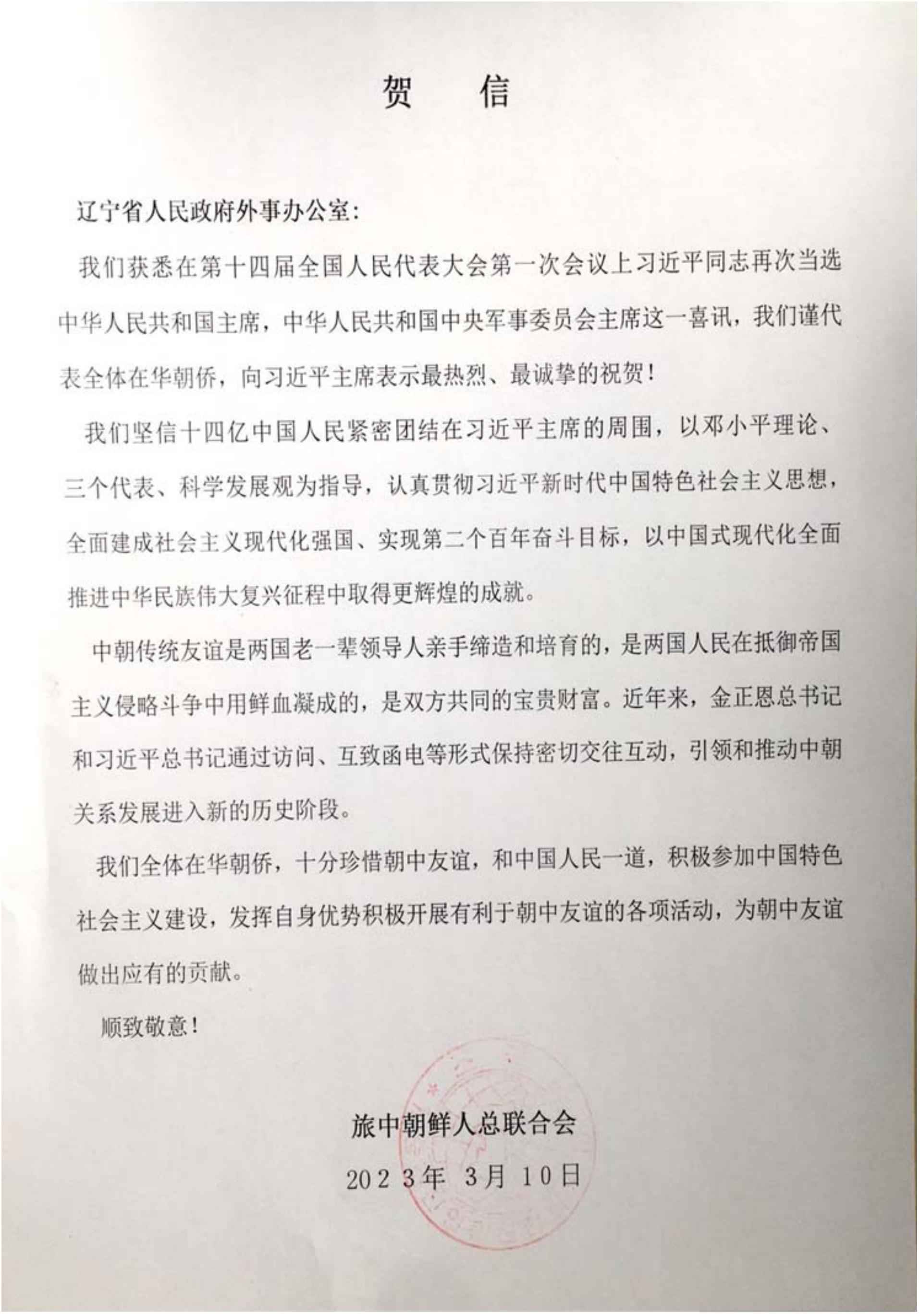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 위민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하늘같은 사랑만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토론들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응축되여있고 인민군군인들의 애국애민의 땀과 지성이 슴배인 온실농장을 정성껏,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갖가지 신선한 남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도내인민들에게 풍족히 보장할 결의가 표명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매진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료녕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에 축전을 보내였다



贺　信

辽宁省人民政府外事办公室：

我们获悉在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习近平同志再次当选中华人民共和国主席，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主席这一喜讯，我们谨代表全体在华朝侨，向习近平主席表示最热烈、最诚挚的祝贺！

我们坚信十四亿中国人民紧密团结在习近平主席的周围，以邓小平理论、三个代表、科学发展观为指导，认真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实现第二个百年奋斗目标，以中国式现代化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征程中取得更辉煌的成就。

中朝传统友谊是两国老一辈领导人亲手缔造和培育的，是两国人民在抵御帝国主义侵略斗争中用鲜血凝成的，是双方共同的宝贵财富。近年来，金正恩总书记和习近平总书记通过访问、互致函电等形式保持密切交往互动，引领和推动中朝关系发展进入新的历史阶段。

我们全体在华朝侨，十分珍惜朝中友谊，和中国人民一道，积极参加中国特色社会主义建设，发挥自身优势积极开展有利于朝中友谊的各项活动，为朝中友谊做出应有的贡献。

顺致敬意！

旅中朝鲜人总联合会

2023年 3月 10日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3 월 13 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의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남조선전역에서 감행되였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지금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자유의 방패》연습은 두말할것도 없고 륙해공군무력을 총동원하여 올해에 벌려놓게 될 대규모의 각종 북침전쟁연습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짜놓고 그것을 뻐젓이 공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파국적인 긴장악화와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또한 《자유의 방패》연습이 끝난 이후에는 미국, 남조선의 대규모련합공중연습들인 《소링이글》과 《비질런트 스톰》을 비롯하여 남조선미국특수작전훈련, 련합과학화전투훈련 등 각 군종, 병종련합훈련들도 벌려놓으려 획책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호전광들은 괴뢰군단독의 군사연습으로서《북방한계선 국지도발》합동대응훈련이니,《화랑》과 《호국》훈련이니, 《태극연습》이니 하는 것들도 련이어 벌려놓을것이라고 광기를 부려대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선제타격》의 객기를 부려대며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타격수단들을 줄줄이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하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무모한 전쟁도발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국과 그에 추종한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전쟁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현실은 정세를 대결과 긴장격화의 극단에로 몰아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과 그의 핵전쟁사환군으로 발벗고나선 윤석열역적패당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립증해주고있다.

하지만 도발자들은 오산하고있다.

지난 세기 50 년대에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에서도 패한 미국과 괴뢰들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과 힘으로 맞서보겠다는것은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자멸적인 망동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공화국의 공민된 커다란 긍지를 안고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 112(2023)년 3 월 13 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32돐 기념강연회 심양에서 진행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32 돐에 즈음하여 3 월 3 일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기념강연회가 진행하였다.

강연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으며 회의실뒤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최수봉제1부의장이 기념강연을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크나큰 배려속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32 년전 심양에서 결성되였다고 하면서 총련합회결성 32 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와 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고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해외동포사랑의 손길을 대를 이어 빛내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그는 총련합회가 걸어온 지난 32 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를 마음껏 받아안고 재중동포들의 삶을 꽃피워 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전체 재중조선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총련합회를 부단히 강화발전시키고 전체 재중조선인들을 조직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사업을 힘차게 벌려온 빛나는 로정이라고 하였다.

총련합회가 주체의 해외공민조직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 무한한 배려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총련합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을 받드는 주체의 해외동포조직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지침인 동포제일주의를 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 철저히 구현시켜 일군들이 동포들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한편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해외동포조직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그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 해도 변함없이 투철한

수령관, 조국관, 애국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강화발전시켜나가면서 조국인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날 윷놀이, 알아맞추기, 륜던지기, 오자미던지기 등 유희오락들을 벌리고 민족전통음식들을 맛보면서 노래와 춤으로 우리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32돐기념행사 단동에서 진행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32돐 기념행사가 3월 3일 단동조선공민활동실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심양총령사관 단동대표부 당비서동지와 박유일동지, 리순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 료녕지구협회 단동시 지부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에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 명의의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기념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경제인련합회 고영석부회장과 김영옥위원이 랑독하였다.

이어 경제인련합회 리순남회장, 청년협회 리설희사무국장, 단동시지부 리원룡공민이 자기단체를 대표하여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32 년간의 력사는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온 자랑찬 력사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원수님께서 우리 재중조선인들에게 돌려주신 하해같은 사랑과 배려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심양총령사관 단동대표부 당비서동지가 재중총련결성 32 돐을 맞는 우리들을 축하해주고 투철한 수령관, 조국관, 애국관을 지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강화발전시키고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찾아해줄것을 바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재중총련결성 32 돐을 맞으며 지나온 로정을 돌이켜보면 볼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원수님의 따뜻한 품과 사랑이 있었기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애국애족사업을 마음껏 벌려올수 있었다. 우리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총련합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애국사업을 더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며 이렇게 단동시에 조국의 한부분인 조선공민활동실을 훌륭히 꾸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노래《**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경축행사를 끝마치였다.

목단강지구협회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32 주년 기념모임 진행

총련합회회 결성 32 주년을 맞으며 3 일 목단강지구협회에서 기념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남초월 목단강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목단강시지부, 녕안시지부, 해림시지부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모임에서 남초월회장은 재중총련결성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32 년전 이국땅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있는 우리 해외공민들에게 조직을 무어주시고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삶의 희망을 안겨주시고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해외동포운동사상의 빛나는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들은 지난 32 년간 조국과 숨결을 같이 한 그마음 그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재중총련의 의도대로 각급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체 공민들을 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워 애국애족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재일총련 제 25 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학습하였다.

또한 모임에서는 녕안시 박상진지부장, 해림시 김영일지부장이 재중총련에서 진행한 광명성절경축행사진행정형을 행사참가자들게게 소개하였다. 재중총련에 도착한 그들은 외부와 내부 전체 호화롭게 장식된 총련합회의 본



부건물을 보는 순간 기쁜 마음은 말로서 형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리고 오래간만에 각지에서 온 일군들과 공민들을 만나니 반가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광명성절행사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화상회의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에서도 재중총련행사들을 시청할수 있게 한 재중총련사업을 긍정하면서 앞으로 총련을 받드는 사업을 더 활기차게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모임에서 남초월회장은 재중총련에서 해림시 김영일지부장을 목단강지구협회 부회장으로, 목단강시 김영희공민을 목단강지구협회 사무장 겸 목단강시 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하면서 재중총련에서 보낸 임명장을 김영일부회장, 김영희지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조직의 믿음으로 임명장을 받아안은 김영일부회장과 김영희 목단강지구협회 사무장 겸 목단강시 지부장은 공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일군이 되겠다고 결의를 다지였다.

남초월회장은 모임 참가자들에게 2022 년 11 월에 총련일군들과 담당령사동지가 목단강지구협회에 내려와 공민들의 실태를 료해하고 공민들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재국 해당부문에 각서를 보내여 현재 주재국 해당부문 일군들의 적극적인 협조밑에 공민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공민들의 애로를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

모임은 시종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무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준 재중총련을 더 잘 받들어 나가려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총련합회결성 32 돐 기념모임 연길에서 진행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32 돐기념 연변지구협회 연길시지부 모임이 3월3일 중국 연길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차상보부의장 겸 연변지구협회회장, 김권부회장, 심홍광사무장을 비롯한 협회일군들과 연길시지부 장명순지부장을 비롯한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교포조직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32 년의 로정을 긍지와 감격을 안고 감회깊이 되새겨보았다.

참가자들은 뜻깊은 결성기념일에 즈음하여 총련합회를 무어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총련합회의 애국애족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참가자들은 슬하에 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항상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１９９１년 ３월 ３일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지켜주는 참다운 애국조직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총련합회의 자랑찬 로정우에 새겨진 32 돐의 년륜을 돌이켜보며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령도의 손길과 어버이품을 떠나서는 이역땅에서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리수 없고 애국애족의 옳은 길을 걸을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였다.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총련합회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육친의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가는것은 재중동포

들이 누리는 크나큰 행운이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명실공히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애국사업에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사랑받는 지부, 사랑받는 일군이 되자!





서한집행관철 및 조직강화를 위한 모임이 3월 9일 집안시에서 진행되였다.

허상숙지부장을 비롯한 집안시지부공민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서한을 학습하고 올해 집안시지부사업방향이 론의되였다.

모임에서는 당면 지부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준남공민을 집안시 부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전체 공민들을 발동하여 애족애국사업을 활성화해나가는데서 필수적인 강습을 진행하고 공민들속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는 기타 지방들의 경험들을 공민들에게 소개해주었다.

모임에서는 탁상용 공화국국기를 배포하고 재중총련의 잡지들을 나눠주고 잡지구독신청을 취급하였으며 집안시공민등록을 정확히 확인한후 모든 공민들이 서로 련락할수 있는 조직련계망을 만들었다.

허상숙지부장은 모임에서 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지부일군들은 헌신적인 정신으로 공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고 지부조직의 뜨거운 손길이 매 공민들에게 닿게 심혈을 기울일것이며 동포제일주의를 진정으로 공민들속에 지향시켜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모임은 집안시지부가 강령적인 서한을 관철하여 공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부가 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할빈시지부에서 할빈시조선족동포들 윷놀이 경기에 참가

3.8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3 월 4 일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에서 윷놀이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에는 할빈시 각계층 조선족사회단체들과 동포들을 포함하여 600 여명이 참가하였다.

할빈시지부 조선공민들도 한단체로 본경기에 참가하였다.

윷놀이 경기에는 52 개팀이 참가하였다.

경기가 시작하기전 경축공연이 있었다.

민족옷차림으로 진행한 윷놀이 경기는 시종일관 민족의 전통을 고수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광명성절에 울려퍼진 재중공민들 행복의 웃음소리

총련합회 김영희국장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1 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보고회가 2 월 16 일 심양시에 자리잡고있는 총련합회 본부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금년초부터 코로나방역통제가 해제되면서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 지구협회 회장들과 지부장들, 공민들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흠모심을 안고 참가하였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3 년이 넘도록 총련합회 본부청사에 오지 못한 산하조직 대표들은 새로 꾸려진 본부청사앞에서 과연 ≪잘못찾아오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심으로 가슴 설레이며 그 누구를 불문하고 얼굴에 기쁨과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였다.

이전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본부청사에 처음 찾아오는 산하조직 대표들은 건물외부로부터 시작하여 내부에 이르기까지 특히 현대적으로 꾸려진 회의실을 돌아보고는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어쩔줄 몰라 본부일군들 손을 꼭 붙잡고 평범한 우리 기층조직 일군들과 공민들의 감사의 인사를 조국에 꼭 전해줄것을 간곡히 부탁하는것이였다.

그렇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해외공민들의 조선민족된 자부심이 어찌 부풀어 오르지 않겠는가?

우리 조국은 극도에 달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봉쇄와 제재속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하지만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해외공민들을 잊지않으시고 항상 우리 해외동포들을 생각하시고 마음쓰시면서 이번에는 보수작업에 필요되는 막대한 자금까지 마련해주었다.

우리 산하조직 대표들이 이런 내막을 알고 어찌 감동되지 않을수가 있겠는가.

더우기 지난해 보수작업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이틀이 멀다하게 작업복을 차려입고 분주하고 먼지가 풀풀나는 작업현장에 나와 보수작업을 동포들의 정서와 시대적 미감에 맞게 설계해주고 지도해주며 질보장을 위해 원자재까지 몸소 선택해주면서 재중총련건물을 주체의 해외동포조직답게 훌륭히 꾸려 경애하는 원수님의 동포제일주의사상이 실질적으로 해외동포직에 체현될수 있도록 온갖 심혈을 다 기울린 심양주재 총령사관 일군들의 책임적인 일본새에서 재중동포들은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정을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지금 총련합회일군들과 산하조직일군들은 동포들을 위해 멸사복무하겠다는 드높은 애국애족열정을 안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동포제일주의를 모든 사업에 지향시키고 동포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애로를 풀어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동포사랑이 모든 공민들의 마음속에 와닿게하는것과 함께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들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들끓고있다.

나는 산하조직 대표들의 행복하고 밝은 미소에서 우리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그어떤 흉악한 도전과 책동도 파탄될것이며 머지않은 앞날에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질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총련을 받드는 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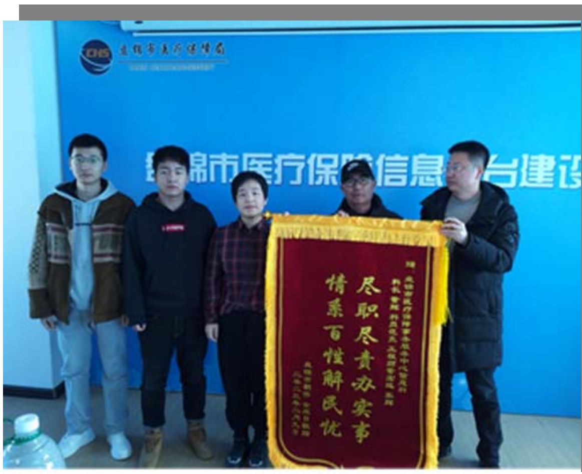


길림시지부에서는 총련결성 32 돐을 경축하여 길림시에서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조직자인 김련원선생은 총련이 걸어온 32년의 자랑찬 려정을 회고하면서 총련을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그는 총련합회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지금 재중총련은 새시대의 걸음에 맞춰 새로운 전승기로 나아가고 있다고 격찬하면서 어머님의 뒤를 이어 민족적 사명으로 맡겨진 사업을 충직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재중총련의 려정에 힘을 합칠것이라고 하였다.

성심성의로 의료보험카드를 개설해준 주재국 유관부문일군들에게 축기 증정



반금시 김성일분회장은 은행카드를 개설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년에 퇴직하였지만 직공의료보험카드를 만들지 못하여 결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였다.

이런 일을 처음겪은 김성일분회장은 당황하기만 하였다. 그는 여러단위들을 찾아다니였다. 반금시의료보장사무복무중심 정보과 과장과 기술자들은 찾아온 고객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상급단위인 의료총국에 문의하고는 제기된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방법을 끝내 찾아 김성일분회장의 전자의료보험카들를 개설해주었다. 사실 외국인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자면 업무의 능숙성도 필요되지만 높은 책임감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료녕지구협회 김성일분회장은 자기의 전자의료카드를 해결해준 의료보장복무중심 정보과 과장 및 기술일군들의 사업작풍에 감동되여 축기를 증정하고 조선해외공민의 감사의 마음을 주재국유관부문에 전하였다. / 편집부

春风送暖暖人心

赞吉林银行兴联支行



길림시지부 김련원

2023 年 3 月 20 日，阳春三月，我满怀感谢之心，把几天前定制的锦旗送到了吉林银行兴联支行。对兴联支行领导及李健旭同志表示了衷心的感谢！锦旗中赞扬了他们在工作中贴心服务，真心相助！

事情的原委是这样的。吉林市的吉林银行自从 2 月份系统升级，部分朝侨的工资存折取款业务受到了影响，需要升级客户资料信息。但是因为是外国人的身份信息登记和本国人的不同，新升级的软件程序对外国人的更新程序还存在部分问题，所以根

本登录不进去，所以跑了很多家银行没能解决，最后来到了兴联支行。年轻的李健旭同志了解我们的困难，表示愿意帮助，向领导申请后，和领导一起研究登录方法，并申报后台，让我们回去等消息。经过这样多次的来来回回，跑了多次，每次去都解决一些问题，一步步的，最后历经近 20 多天，申请上级，层层申报，终于完善了系统升级，取到了工资。

而朝侨李正河老人的因护照过期正在办理新护照，不能更新客户资料就不能办理。面对这个问题，经过报告总联合会事务局董局长，开了正在申请办理护照的领事馆证明，又和银行领导协商后，为了尽快解决老人生活保障困难问题，临时改用永久居留证存档，将工资存折放开，待护照下来后再更换信息，为老人的生活带来了极大的便利。

兴联支行李健旭同志年纪轻轻但业务熟练，从第一次接待到最后一天，每次都笑脸相迎，亲切热情，尊老有礼，耐心体贴，待客户如亲人，送温暖胜春天。他说的一句话让我深深感动，他说虽然接待您的是我，但处理这些事情的人其实很多，背后有各个部门的同事和领导。很朴实很纯粹的人。是的，为了感谢每个帮助我们的人，我们以旅中朝鲜人总联合会吉林市支部全体朝鲜公民的名义献上了锦旗，锦旗虽小，但我们的心意满满！

兴联支行领导接受锦旗时表示感谢，并说这是对他们工作最好的认可和支持，也希望吉林市的朝鲜公民在银行业务遇到困难时可以随时来他们支行，他们将全心全意为大家服务。

深厚的朝中友谊在生活的点点滴滴中尽显美好！愿朝中友谊长存！

머슴《대통령》의 말로

김송미　청년협회선전국 국장

지금 온 겨레는 외세를 등에 업고 조선반도정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강요하고있는 윤석열역도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그것은 윤석열역도가 자기 민족보다도 외세를 하늘처럼 떠받들며 굴종하는 희세의 친미, 친일매국노, 미국을 위한 머슴《대통령》이기때문이다.

민족자주란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그의 입에서 늘쌍 붙어사는 말은 바로 《한》미일동맹강화론이다.

올해 2 월부터 《<한국형>3 축타격체계와 확장억제력의 강화》등을 쪼아박은《2022 국방백서》를 발간한데 이어 3 월에 들어와 외세와 야합하여 《자유의 방패》, 《소링 이글》, 《비질런트 스톰》, 《쌍매》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합동군사훈련들을 지난 시기보다 더 광범하게, 더 강도높게 벌릴것을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는 사실들은 윤석열역도의 전쟁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 아다싶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들의 주최자는 미국과 괴뢰패당이며 이 모든 훈련계획은 저들이 작성한 전쟁계획에 토대하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전쟁계획까지 론한다면 엄중성은 더 배가된다.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30》들과 지난해까지 훈련에 적용했던 《작전계획 5015》에 이르는 모든 작전계획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우리 조국에 대한 《선제공격형 전쟁계획》이라는것이다.

특히 《작전계획 5015》는 《참수작전》과 《평양진격작전》 등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이 매우 공격적이고 모험적이여서 악명이 높으며 미국

과 괴뢰패당은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말에 새로 갱신된 작전계획을 또 작성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포하고있는 위험성이 《작전계획 5015》를 릉가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서 《50》이라는 수자는 조선반도가 미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역임을 의미한다.

외세에 매달려 우리 민족의 운명과 존엄, 자주권을 롱락하고 그 리익을 팔아먹은 윤석열역도의 가증스러운 역적행위는 대를 두고 결산해야 할 가장 수치스러운 매국반역죄이다.

한세기전 《을사 5 적》이 왜나라오랑캐들의 대포와 총칼앞에 굴복하여 30 만원의 은사금과 백작, 남작칭호를 받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팔아먹었다면 오늘 윤석열역도가 바로 그 길을 걷고있다.

문제는 윤석열역적패당이 대결에 미쳐날뛰다가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임자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반공화국전쟁열에 들떠있는것이다.

지난 세기 50 년대에 원자탄을 휘두르는 미국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하여 《북진》을 단행했던 리승만역도,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상전과 함께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렸던 군사독재깡패들, 감히 《족집게식타격》, 《참수작전》따위를 떠들며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해온 리명박, 박근혜역도들의 비참한 말로가 바로 그러하다.

감히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과 맞서겠다고 설쳐대는것처럼 어리석고 부질없는짓은 없다.

아직도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꿈꾸어온 상전의 흉심을 그대로 받아물고 반공화국침략전쟁각본을 앞장서 수행하고있는 윤석열역도야말로 우리 민족의 평화의 원쑤, 정세악화의 주범이다.

윤석열역도의 반민족적행위는 시효가 없는 범죄, 천추를 두고 용납 못할 죄악중의 죄악이다.

력사는 외세를 우상처럼 떠받들며 민족을 반역한 매국노, 역적들의 운명에 공정한 심판을 내릴것이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

길림시지부 김련원

반공화국전쟁대결에 환장한 윤석열역적패당이 집권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만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매일과 같이 각종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살을 떠벌이면서 《선제공격》의 망상속에 잔명을 부지하고있는 역적패당의 해괴한 몰골이야말로 미치광이 한가지이다.

조선속담에 이불깃 보고 발을 펴라는 말이 있다.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여있고 그들의 승인없이는 총알 하나 쏠수 없는 괴뢰군을 가지고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쩔쩔매는 우리 공화국에 대고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무지하게 놀아대는 역도의 꼴을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는가.

어린 아이라면 철이 없다 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자가 이런 꼴이니 세상의 조소거리라 아니할수 없다.

전쟁으로 생겨났고 전쟁으로 살쪄 온 미국에 추종하여 맨 선참으로 미국의 대포밥이 되려고 헤덤비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저들의 구린내나는 잔명만을 부지하려는 극악한 매국역적의 무리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에 추종하여 감히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집을 일으킨다면 제가 지른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조국소식

zuguoxiaoxi

서포지구에 영웅청년신화창조의 불바람이 휘몰아친다

우리 국가의 위상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될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조에서 건설의 첫 단계라고 할수 있는 기초굴착을 다그치기 위해 중기계와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나가고있으며 려단들에서 골재확보를 비롯하여 앞으로 요구될 자재보장을 위한 대책도 예견성있게 따라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여가고있다.

또한 서로 배우고 배워주며 경험을 공유하고 앞선 단위의 모범을 본받는 기풍을 세우는데 힘을 넣어 건설장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예술선동활동과 여러 성, 중앙기관과 지역 일군들의 현장정치사업도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내각과 각 도, 시의 책임일군들이 공사장을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격식없이 진행한 정치사업은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에 떨쳐나선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지금 곳곳에 게시된 힘있는 구호와 표어, 속보판 그리고 방송선전 등 다양한 형식의 정치사업은 맡은 대상건설에서 용감한 우리 청년특유의 불굴의 기상을 또다시 남김없이 떨치려는 대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자강도려단과 평안남도려단에서 기초굴착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황해남도려단에서도 기초굴착구간이 수령인 조건에 맞게 중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동적인 지휘로 공사실적을 높이고있으며 골재확보 등 다음공정에 대한 준비작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평양시려단과 성, 중앙기관려단에서는 나의 수도, 나의 평양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위훈의 사연을 자서전에 새겨넣기 위해 기세를 올리며 하루하루를 높은 실적으로 이어가고있다.

평안북도려단, 라선시려단, 개성시려단을 비롯한 그밖의 시공단위들에서도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애국청년, 영웅청년의 기개를 높이 떨쳐갈 비상한 열의 안고 맡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새 거리건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청년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공사성과는 시간이 다르게 확대되고있다.









조국강산을 푸른 숲 설레이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가꾸어갈 드높은 열의

각지에서 기념식수 의의있게 진행

충성과 애국의 열정,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국가의 부흥과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 특유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위대한 전환과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더욱 승화되는 속에 식수절을 맞으며 14 일 각지에서 기념식수가 진행되였다.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사랑하는 조국강산을 꽃피는 사회주의의 크나큰 락원으로, 만복의 무릉도원으로 가꾸어갈 불같은 열의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차넘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며 자기 단위, 자기 고향마을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여야 합니다.》

산림조성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각지 일군들, 근로자들이 기념식수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을 더욱 숭엄하고 아름답게 꾸리는데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참가자들은 나무심기에 깨끗한 량심과 진정을 다 바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 1 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일군들이 중앙식물원 수목원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다해 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3 월 조선로동당 제 2 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신 화성산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식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없을 순결한 량심을 심는 사업이라고 하신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될 의지를 가다듬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나무심기에 참가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며 새세대들의 애국의 마음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안고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시안의 청년동맹일군들, 동맹원들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주변에 많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직총중앙위원회, 농근맹중앙위원회, 녀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구뎅이파기, 부식토깔기를 비롯하여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만경대혁명사적지, 어은혁명사적지에서 식수를 하였다.

우리 조국을 푸른 숲 설레이는 만복의 터전으로 전변시키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



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갈 일념으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이 문수봉혁명사적지와 당창건기념탑주변 등지에서 나무를 심었다.

수도 평양을 수림화된 도시, 록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애국의 마음들이 시안의 곳곳에서 분출되였다.

화성지구에서 식수를 진행하는 군민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리념이 구현된 또 하나의 리상거리건설에서 새로운 화성속도, 화성신화를 창조해갈 열의가 넘쳐났다.

평양시의 구역, 군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 소중한 마음을 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거리와 마을, 일터들을 단장하였다.

자기 고장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는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가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한평생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평안남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지역에 높이 모셔진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인민군렬사묘주변 등지에 나무들을 성의껏 심었다.

대규모의 온실남새생산기지,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실체로 희한하게 솟아난 련포온실농장과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 중평온실농장에서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를 심으면서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였다.

산림조성사업의 병기창을 지켜선 긍지드높이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강원도양묘장을 비롯한 각지 양묘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함으로써 식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후대들의 행복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해가는 숭고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온 나라 인민의 애국의 열정은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의 노래와 더불어 내 조국에 푸르름을 더해주고있다.

[위민헌신의 열두달] 현대문명의 본보기거리로

위민헌신!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사랑의 날과 날로 엮어지는 이 땅에서 누구나의 마음속에 숭엄히 새겨진 부름이다.

이 부름과 더불어 우리의 세월은 류례없이 엄혹한 격난을 헤가르며 사랑과 정의 세월, 인민의 세월로 끗끗이 흐르고있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민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승리로 빛나는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성스러운 날과 달들은 그대로 이 세상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도 있어본적 없는 위대한 어버이의 위민헌신으로 수놓아져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로 멸사복무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위대한 헌신의 세계를 누구나 다시금 가슴뜨겁게 안아본다.

* * *

주체 104(2015)년 2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전날에 비행기를 타시고 건설중에 있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부감하시면서 종심이 깊지 못하다는것을 헤아려보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위해 나오시였던것이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도로 반대켠에 2 단계건설까지 마저 하여야 거리의 종심을 보장할수 있고 1 단계에 건설한 대상들이 빛이 나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건설지휘부와 설계부문의 해당 일군들이 비행기를 타고 건설장을 내려다보도록 조직해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일군들이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주인으로서의 긍지감을 가지게 될것이며 1 단계건설에서 부족점이 무엇이고 2 단계건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것도 가늠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비행기까지 띄워주시랴 하는 생각에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이날 그이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우리가 마음먹고 건설하는 대상인것만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현대문명의 본보기거리가 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정녕 미래과학자거리는 하늘길에서도 보아주시고 현지에서도 보아주시며 건설과정을 세심히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루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살림집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직접 페부로 느끼게 하는데서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살림집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기자;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의 법에는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그것을 구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이 반영되여있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것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반영된 사회주의법들가운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일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최근 몇해어간에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주체건축의 위력을 과시하는 멋쟁이 새 살림집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지난해에만도 특색있는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송화거리가 인민의 리상거리로 훌륭히 솟아나고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으며 전국의 시, 군의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소식이 련이어 전해졌다.

수도에 웅장하게 솟아오른 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적인 법의 생활력과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기자; 살림집법의 원칙에 대하여 알고싶다.

일군;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살림집법은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주며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백히 밝히고있다.

살림집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원칙에 따르면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와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세대같은 대상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고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살림집을 배정하게 되여있다.

기자; 그것을 놓고 우리는 조국의 북변에 일떠선 살림집들과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은파군 대청리의 새 마을들,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온 나라 각지에 일떠선 하나



송화거리

하나의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다시금 그려보게 된다.

일군; 고마운 우리 제도의 인민적시책은 또한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같게 작성된 살림집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는 조항에도 비껴있다.

지난해에 일떠선 새 농촌살림집들만 놓고보아도 한개 마을에서도 소층, 단층, 다락식으로, 지붕도 평지붕, 경사지붕으로 다양하게 설계함으로써 지난 시기의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대담하게 타파한 서로 다른 형식의 살림집들이다.

인민들이 문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살림집법은 모든 공민들이 살림집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을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로 규제하고있다.

기자; 정말이지 고마운 법의 보호속에 훌륭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인민은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 없다.

일군; 시대문명의 높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거리와 마을, 건축군들을 련이어 일떠세우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주려는 우리 당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올해에도 우리 당은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 1 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수도건설과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을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였다.

기자; 언제나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가고 있는 위대한 당이 있고 당이 펼친 눈부신 현실을 진정한 인민의것으로 굳건히 담보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법이 있어 이 땅에 넘쳐나는 인민의 행복은 정녕 끝이 없다.



세계의 많은 곳들에서 사람들이 집이 없어 한지에 나앉고 사회악을 낳는 온갖 악법들의 페지를 요구하는 항거의 목소리들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을 때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법이 나날이 늘어나고 그 법의 보호속에 터치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이 펼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우리 당 온실농장건설정책의 생활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전국도처에 일떠세운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 드넓은 청춘과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 중평온실농장에 해마다 흐뭇한 남새풍경이 펼쳐져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업후 3 년 남짓한 기간에 대규모온실농장에서는 많은 량의 오이, 도마도, 고추, 배추 등 갖가지 남새를 생산하여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벌방지대 부럽지 않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받아안게 된 함경북도의 인민들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온실바다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북방의 동해기슭 중평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대규모온실농장은 위민헌신의 자욱을 끝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며 경성군 중평지구에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에서 온실농장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한달사이에 두차례나 현지를 답사하시면서 몸소 부지를 잡아주시고 건설을 맡아할 인민군부대들과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편성하여 파견하여주시였으며 매주, 매월 실태를 보고받으시며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조업의 그날에는 친히 조업테프를 끊으시며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온실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여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온실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온실농장건설정책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 일념밑에 남새생산을 늘여나갔다.

특히 남새모생산과 비배관리 등 모든 영농공정별작업이 기술규정대로 진행되도록 현장기술지도를 알심있게 하는 한편 품종배치를 바로하고 겹재배방법도 널리 받아들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이였다. 남새작물의 가지수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품종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주목을 돌리는 한편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열매남새품종의 비중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하여 농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량의 갖가지 남새를 생산하여 청진시민들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에게 보내주었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초등학원, 중등학원 등에도 공급하였다.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으신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실농사와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륜전기재들과 많은 량의 영양액비료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주인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크나큰 은덕을 세세년년 빛내여갈 보답의 열기로 심장을 끓이며 올해에도 남새가꾸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이들은 남새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고 겨울철조건에 맞게 온도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면서 생육조건을 철저히 보장해나갔다.

온실호동마다에서는 한겨울에도 갖가지 남새들이 청신한 잎새를 한껏 펼치였다. 그럴수록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작업반별, 호동별경쟁열의를 고조시키며 더욱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하여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많은 량의 온실남새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도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훌륭히 일떠선 중평온실농장이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도록 남새생산은 물론 수송과 공급사업에도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도안의 인민들이 어머니당의 사랑을 실생활을 통하여 가슴뜨겁게 체감하게 하고있다.



각지에서 3.8국제부녀절을 뜻깊게 맞이

3.8국제부녀절 113돐을 맞이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주체조선의 녀성혁명가된 존엄과 기개를 높이 떨쳐가는 우리 녀성들의 무한한 자긍심이 차넘치고있다.

사회주의대가정에 차넘치는 녀성들의 기쁨

전체 인민은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며 순결한 사랑과 다심한 정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의 미덥고 장한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화원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여나는 우리

의 녀성들과 녀맹원들에게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물결쳤다.

가장 경건한 마음 안고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주체적녀성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녀성들을 혁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



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수많은 군중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각 도, 시, 군과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일군들이 해당 단위의 녀성과학자, 교원, 로력혁신자들을 비롯한 모범적인 녀성근로자들을 만나 축하해주었다.

일군들은 녀성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나라의 부강발전과 사회와 집단, 가정의 단합과 화목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가는 참된 녀성혁명가가 되라고 적극 고무해주었다.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축하공연들과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였다.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모란봉극장에서 열리였다.

관현악 《녀성은 꽃이라네》로 시작된 무대에는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 강산 하도 좋아》, 관현악 《내 마음 별에 담아》,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다.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힘있는 력량으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에 충성과 애국의 활력을 더해가는 주인공들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우리 녀성들의 무한한 긍지와 기쁨을 담은 경쾌하면서도 박력있는 선률은 장내를 시종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녀성의 노래》, 《예쁜이》,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준마처녀》를 비롯한 노래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애국충정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평양대극장에서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이 진행한 음악무용소품공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



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에 대한 축하의 마음을 감동깊게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단막극 《내가 찾는 사람》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국립민족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여 명절을 맞는 녀성들과 인민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체력교예와 희극교예 등으로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국립교예단 배우들이 출연하는 종합교예공연이 있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이 개선문광장에서 다채로운 야외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시랑송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하모니카와 쌕스폰중주 《처녀의 노래》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대가정에 그윽한 향기를 더해주는 녀성들을 소리높이 자랑하였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지에서도 축하공연들이 관중들의 절찬속에 진행되였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순안구역, 삼석구역과 청진시 포항구역을 비롯한 각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고 우리 녀성들이 즐기는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로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각지의 급양봉사망들이 녀성들을 위한 특색있는 명절봉사로 흥성이였다.

옥류관, 청류관, 함흥의 신흥관을 비롯한 급양봉사기지들에서 녀성들이 명절을 즐겁게 쇠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남편과 자식들의 뜨거운 진정이 어린 기념품과 아름다운 꽃송이를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있는 녀성들의 모습은 집집마다에 밝은 웃음을 가득 채워주었다. 3.8국제부녀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온 나라 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조선녀성특유의 혁명적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





끝없이 빛나는 우수한 민족전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우리의 앞길을 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11월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적이며 민족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주체110(2021)년 6월에 진행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에서도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도덕기풍,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적극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몇해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태가 반영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있는 창조물들과 미풍량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은 이 땅에 일떠
서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통해서도 깊이 느낄수 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일떠선 경루동에 가면 앞으로 수도건설과 지방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민족성과 현대성의



정확한 배합에 기초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이 숭엄히 어려온다.

그리고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양로원을 돌아보아도, 평양국제비행장 2 항공역사의 웅자를 바라보아도 이 땅에 일떠서는 모든 건축물들마다에 우리의 멋, 우리의 민족성이 살아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뜨겁게 절감할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우수한 민족의상인 조선옷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세련되고 아름답게 발전할수 있게 된데도, 명절이나 휴식일이면 윷놀이, 장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들이 더욱 즐겁게 벌어지고있는데도 우리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찬란히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전통을 빛내여가시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은 민족문화예술발전에도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속에 창조되여 온 세계를 경탄시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들에는 민족의 넋과 기상이 기백있게 흘러넘치고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다만풍가》, 《세월이야 가보라지》와 같은 민요풍의 노래들과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는 우리 식의 특색있는 음악작품들도 민족음악예술의 자랑찬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본보기적인 음악작품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민족문화유산들과 력사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미풍량속을 잘 알고 민족적긍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새로운 주체 100 년대에 들어와 민요 《아리랑》과 우리 민족의 김치담그기풍습, 민족씨름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빛나는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세상을 둘러보면 민족의 넋을 고이 간직하고 지켜나가려는것은 세계 모든 민족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하지만 력사와 전통, 풍습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고수되고 개화발전하는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 펼쳐진 자랑스러운 현실은 위대한 수령의 손길아래에서만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끝없이 빛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4중세계유술 선수권보유자



계순희는 조선의 이름난 유술강자이다.
그는 유술을 시작하여 몇해후에 벌써 공화국체육명수가 되였다.
주체85(1996)년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유술 48kg급경기에 출전한 그는 결승경기에서 세계선수권보유자인 일본선수를 통쾌하게 타승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평범한 사무원가정에서 태여난 계순희는 어려서부터 유술을 무척 사랑하였다.

유술선수로서의 남달리 좋은 육체적조건을 갖춘 그는 유능한 지도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유술을 마음껏 배울수 있었다.

그후 2~3 년사이에 육체기술적능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선 그는 여러 국내경기들에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다.

그의 첫 국제경기는 1996 년에 열린 제 26 차 올림픽경기대회였다.

미국땅 한복판에 우리의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릴 결심을 안고 그는든든한 배심으로 맞다든 상대선수들을 모두 보기좋게 떨구어버리고 결승경기에 나섰다.

세계유술계는 조선의 신진선수와 일본의 《유술의 별》이라고 자처하는 다무라 료꼬간의 결승경기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주시하였다.

이 결승경기에서 계순희선수는 첫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쥐고 신심있게 경기를 운영하여 세계면전에서 자기의 전적을 자랑하며 으시대던 일본선수를 무릎꿇게 하고 조선의 담력과 배짱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아직은 철부지소녀에 지나지 않던 그는 국제경기성과로 하여 인민체육인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제 1 급을 수여받게 되였다.

그후 그는 2001 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2003 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2005 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2007 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에서 모두 1 위를 쟁취하여 4 중세계유술선수권을 보유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계출판보도계는 《최강의 실력으로 세계를 메친 유술영웅》, 《10 년이 넘도록 세계패권을 지켜낸 계순희》라고 찬사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그는 **김일성**상계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의 값높은 칭호를 받아안게 되였다.

그는 자랑만으로 가득찬 영예로운 선수생활을 마친 후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모란봉체육단에서 감독으로 사업하면서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여갈 세계적인 유술선수들을 키워내는데 전력을 다하고있다.

대외관계

duiwaiguanxi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김정일기금 중국 단동지부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김정일**기금 중국 단동지부가 창립 9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3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4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17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대외경제성 부상 박정웅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웰남에서 기념행사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신 4돐에 즈음하여 1일 랑썬주박물관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웰남 외무성, 웰남조선친선협회,랑썬주인민위원회, 랑썬주박물관의 일군들,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 등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웰남방문 사적물전시구획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호지명주석과 상봉하시는 영상사진문헌앞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 전시구획을 돌아보았다.

이어 기념좌담회가 있었다.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웰남공식친선방문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와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웰남 외무성, 웰남조선친선협회,랑썬주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웰남과 조선사이의 관계는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몸소 마련하시고 여러 세대 령도자들께서 가꾸어오신 귀중한 관계이라고 말하였다.

웰남과 조선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는 **김정은**동지의 웰남방문을 통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랑썬주박물관에 전시된 사적물들은 두 나라에 있어서 귀중한 재보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박물관을 더 잘 꾸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웰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피력하였다.

조선인민이 조국보위와 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끝)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적의리심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해외연고자가족들 강조

고결한 인간애와 숭고한 덕망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해외연고자가족들속에서 뜨겁게 분출되였다.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량성룡가족은 다음과 같이 회억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였다.

해외에 살고있는 연고자가족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은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다.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혁명적의리심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철,박길송가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성원들을 조국에 불러 최상최대의 특전을 안겨주시고 해외에서도 선렬들의 뜻을 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고자가족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던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은덕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김정일장군의 한평생은 위대한 혁명가,탁월한 정치가,만민의 어버이의 거룩한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상월,풍중운,류통사가족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찬양하였다.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정일**장군께서는 중조친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울화,주보중,진뢰가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육친의 사랑을 후세토록 길이 전해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장군의 국제주의적의리는 오늘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강자화가족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김정일**장군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진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위인적풍모로 하여 만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신 그이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끝)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23 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진정에는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특명전권대사,왈레리 이싸옌꼬 무관을 비롯한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해방탑에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탑을 돌아보았다.

이날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은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 꾸바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이며 꾸바공화국 주석인 미겔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23 일 답전을 보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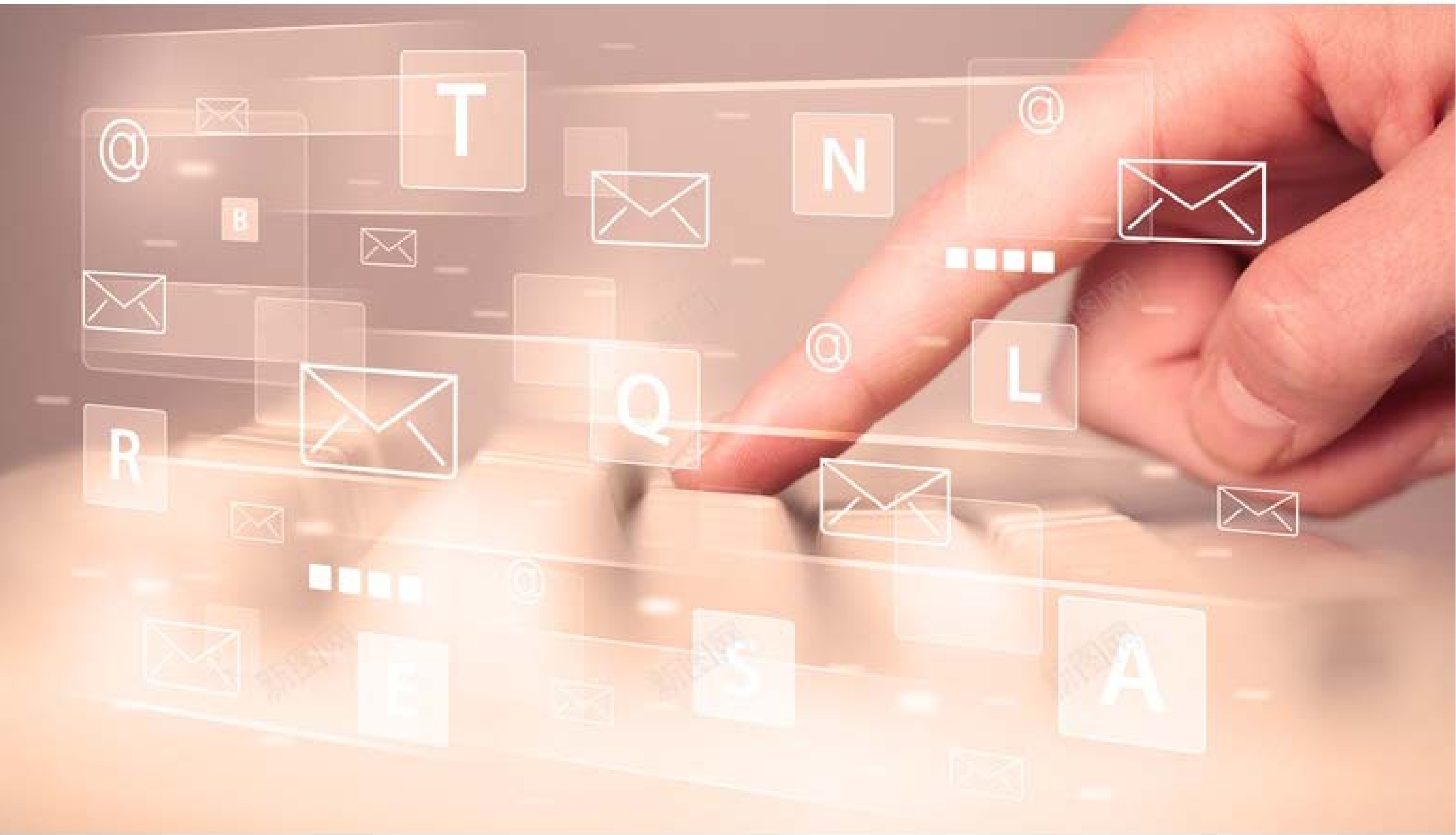
답전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동지,

나는 당신께서 꾸바혁명승리 64 돐에 즈음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꾸바당과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꾸바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피델 까스뜨로 루쓰최고사령관에 의하여 맺어진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련대성, 협조의 력사적뉴대를 대단히 중시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끝)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어느한 남조선괴뢰언론은 지난 2 월 24 일 미인디아태평양사령관이 우리가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것이라고 발언한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불명확한 보도를 내놓았다.

그가 실지 미군부의 립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실언을 하였는지 아니면 괴뢰언론의 상투적인 말장난질인지 그 진위는 알수 없으나 사실유무,리유여하를 떠나 명백히 사전경고해두려고 한다.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

해마다 태평양을 자기 안뜨락처럼 여기면서 미군이 무시로 실시하는 전략무기시험발사를 만약 제 3 국이 대응을 명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매우 흥미롭다.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념두에 두었더라면 자기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엄청나고 미친 망발을 하였는지 깨달을수 있을것이다.

이번에 미인디아태평양사령관이 《한미확장억제수단운용도상훈련》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메쎄지를 준 효과가 있는 《매우 뜻이 깊은》것으로 묘사하였다고 했다는데 우리에게도 미국에 보내주고싶은 메쎄지가 있다.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군사적행동규범이 설정되여있다는점을 상기시킨다.

최근에 간과할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표현들은 의심할바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부의 활발한 군사적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있으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는 상시적준비태세에 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해야 할것이다.

주체 112(2023)년 3 월 7 일

평 양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합동군사연습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프리덤 실드(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지금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 연습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최대로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대결망동이기때문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대규모의 륙해공군무력을 동원한 각종 북침전쟁연습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짜놓고 실행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악화에로,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으며 지난 6 일부터 시작된《위기관리연습》에 이어 이번에는 상반기 합동군사연습을 본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머리우에 참혹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의도적인 도발행위, 침략전쟁의 서곡임이 분명하다.

저들의 침략적목적달성을 위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횡포무도한 호전광들의 전쟁칼춤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것은 현실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이전 시기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나마 내들었던 《년례적인 방어성격의 연습》이라는 간판마저 완전히 집어던지고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북침공격기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에 진행할 련합상륙훈련《쌍룡》을 지난 시기와 달리《북정권붕괴 및 안정화작전》을 기본으로 한 지상공격작전과 배합하여 강행할것이라고 하는 등 20여개의 야외실기동훈련들을 실전과 같이 보다 공격적으로 벌리려 하고있다.

연습의 전과정이 철저하게 공격적, 공세적인 내용으로 일관되며 《북지역점령》과 그에 따른 《안정화작전》을 점검할것이라고 내놓고 공언하고있다.

이처럼 상대방을 《격멸》할 목적밑에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강행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인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는것이 내외여론의 일치한 평이다.

남조선에서도 조선반도의 첨예한 긴장상태와 대결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망동, 스스로 위기를 몰아오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새해벽두부터《선제공격》,《북은 주적》,《전쟁불사》, 《정권종말》과 같은 적대적언사와 크고작은 북침불장난소동으로 대결분위기를 극대화시킨것도 모자라 공공연히 《북점령》을 고아대며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려고 하는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기필코 전쟁위험의 격화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모든 사실들은 미국과 괴뢰들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 극악무도한 전쟁도발자,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주체 112(2023)년 3월 3일 《통일신보》



서서히 드러나고있는 가스수송관폭발사건의 진상

얼마전 미국기자 씨모어 허쉬가 2022년 9월 《북부흐름》 가스수송관들에서 일어난 폭발은 바이든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미해군 잠수병들이 극비밀리에 설치한 원격조종폭발장치에 의한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발표한것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

미국기자 죤 두간도 지난해 6월 발뜨해에서 진행된 나토해상군사훈련《발톱스-22》에 참가한 미해군 잠수병들이 은밀히 훈련수역을 리탈하여 장시간 《북부흐름》가스수송관들의 폭파준비를 위한 수중작업에 동원된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9월말 스웨리예와 단마르크의 배타적경제수역의 40~60m 깊이에 부설된 《북부흐름-1》과 《북부흐름-2》 가스수송관들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4개지점에서 가스가 루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미국과 서방은 무작정 유럽에네르기위기를 악화시키기 위한 로씨야의 의도적인 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로씨야에 대한 규탄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열을 올렸다.

로씨야가 EU 나라들에 합동조사그루빠를 조직할것을 제기하면서 국제적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해명할것을 거듭 요구하였지만 미국과 서방은 귀머거리흉내를 내면서 《로씨야소행설》만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속에 미국기자들이 《북부흐름》가스수송관폭발사건의 배후에 바이든행정부의 음모가 깔려있다고 주장해나선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것이다.

사건의 진범인은 거기에서 최대의 리익을 얻는자라는 말이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로씨야소행설》이 사실이라면 로씨야가 100여억 US$라는 거액의 건설자금이 들어간 가스수송관파괴로 얻게 될 리익이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앞으로 수십년간 《북부흐름》을 따라 흘러들어올 막대한 수익을 대신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과 서방의 목소리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야 가당치 않다.

그렇다면 《북부흐름》가스수송관폭발사건으로 가장 큰 리득을 보는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유럽시장에서 어떻게 하나 로씨야산천연가스를 밀어내고 저들의 값비싼 액화가스를 들이밀지 못해 안달아하던 미국이다.

유럽나라들을 반로씨야대결에로 부추기는데 늘 역흐름을 조성해온 《북부흐름》을 가로막아 미국이 얻게 될 전략적리익 역시 간단치 않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이 미국이 로씨야의 가스수출을 차단하고 유럽가스시장에서 로씨야를 밀어내는것을 대로씨야고립억제전략의 중요고리로 삼고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 의한 《북부흐름》가스수송관폭발설은 신빙성이 있다, 지금 월가에서는 《북부흐름》가스수송관파괴이후 확대된 저들의 가스납입을 경축하는 연회를 차리고 《피가 섞인 포도주》를 마시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

이번에 제기된 미국기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가안보회의와 국무성의 공식인물들은 《북부흐름》가스수송관들에 대한 공격이 바이든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였다는 보도기사는 허구이며 완전한 거짓이라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국의 기자들이 공정하게 미국을 진범인으로 락인한것이 괘씸할지는 몰라도 저들이 그렇게도 떳떳하다면 로씨야가 제기하는 국제적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으며 범죄의 진상은 언제든지 밝혀지기 마련이다.

다국적인 에네르기하부구조인 《북부흐름》가스수송관들을 음모적으로 파괴하여 유럽지역의 에네르기안전과 생태환경에 커다란 부정적후과를 초래한 미국의 죄행은 마땅히 세계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저들의 패권적지위와 탐욕을 위해서는 적수는 물론 손아래《동맹국》들의 리익까지도 안중에 없이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미국의 악습화된 강권과 전횡, 음모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안철혁

남조선, 해외단체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중단 강력히 요구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정전 70 년 조선반도평화행동》을 비롯한 남조선의 740 여개 단체, 미국 48 개 단체, 국제 51 개 단체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대규모련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에는 <참수작전>, <북안정화>작전 등이 포함되여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과 미국은 이번 련합군사훈련을 년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있으나 실상은 유사시 대북선제공격과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미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어 《지난 수십년간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 , 전략폭격기나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대규모병력 등이 동원되였다.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남조선미국련합군사훈련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긴장을 격화시켜왔다.》, 《윤석열집권이후 조선반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계속하여 《실전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군사행동은 우발적충돌위기를 높일뿐》이라고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위기, 전쟁위기가 도래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이후 괴뢰대통령실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에 《조선반도전쟁위기해소와 남조선미국련합군사연습중단을 촉구하는 남조선, 미국, 국제단체성명》을 전달하였다.

윤석열역도의 매국적인 일본행각을 규탄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윤석열역도의 일본행각을 놓고 이를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각계층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정권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할수 없다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한일관계개선을 명분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에 면죄부를 주고 다시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성토하고있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정권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마저 팔아넘긴 대가로 기회를 얻어낸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정상화와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한 군사협력문제가 집중적으로 론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군사훈련을 구실로 일본<자위대>의 군화발이 다시 조선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경술국치>가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으며 당한 치욕이라면 <계묘국치>는 윤석열을 비롯한 <계묘오적>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최대의 굴욕이다.》, 《윤석열의 친일죄악은 교과서에 남길 력사의 치욕이다.》고 개탄하고있다.

언론들은 윤석열역도의 일본행각을 《굴욕행각》, 《매국행각》, 《안보위기행각》이라고 단죄하는 각계층의 항의가 거세지고있다고 덧붙였다.

로동시민사회단체들 윤석열역도의 죄악을 단죄규탄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9일 로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당선 1년 립장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역도의 1년간 죄악을 단죄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는 《<힘을 통한 평화>를 운운하며 대규모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 남조선미국확장억제와 선제공격전략강화 등을 추진하고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굴욕적인 외교도 서슴지 않는다.》고 신랄히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침체와 민생, 경제위기, 전쟁위기, 기후위기앞에서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윤석열정부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에 시민과 로동자, 농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계속하여《우리들은 리승만정권에 맞서 4.19혁명을, 전두환정권에 맞서 5.18항쟁과 87년항쟁을, 박근혜의 <국정롱단>폭압정치에 맞서 1 700만촛불을 밝혀내며 장엄한 력사를 써내려갔던 장본인들이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는 《민중우에 군림하는 그 어떤 정권도 오래 지속될수 없다는 력사의 교훈을 똑바로 알라.》고 경고하였다.

언론들은 이날 《립장문》에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로동조합총련맹》을 비롯하여 많은 로동시민사회단체가 서명하였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한일관계개선을 명분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에 면죄부를 주고 다시는 사죄

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성토하고있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정권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마저 팔아넘긴 대가로 기회를 얻어낸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정상화와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한 군사협력문제가 집중적으로 론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군사훈련을 구실로 일본<자위대>의 군화발이 다시 조선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경술국치>가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으며 당한 치욕이라면 <계묘국치>는 윤석열을 비롯한 <계묘오적>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최대의 굴욕이다.》, 《윤석열의 친일죄악은 교과서에 남길 력사의 치욕이다.》고 개탄하고있다.

언론들은 윤석열역도의 일본행각을 《굴욕행각》, 《매국행각》, 《안보위기행각》이라고 단죄하는 각계층의 항의가 거세지고있다고 덧붙였다.

굴욕적인 《강제동원해법》규탄 기자회견 진행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민중행동》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인 《강제동원해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이 《기어코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제3자변제배상안>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윤석열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았다.》, 《강자인 미국과 일본에는 굴욕적저자세로 일관하고 약자인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짜내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리완용이 력사속에서 지워질수 없는 매국노이듯이 윤석열정부의 매국행위에 대한 민족의 분노는 영원할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2015년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가 박근혜정부의 몰락을 재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참가자들은 《윤석열정부는 이제부터 민심을 거스른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즉각 페기하라!》, 《굴욕협상 매국외교 윤석열정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교수·연구자 단체와 야권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출처: 통일뉴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사상과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동포들의 진함없는 힘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영원한 승리적담보입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이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을 유일무이한 원동력으로 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그 은정 영원히 못잊어

총련 니시도꾜 마찌다지부에서 얼마전 특색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이름있는 연주가들을 초청하여 마련한 2월의 봄맞이예술공연이였다.

조국의 향취가 풍기는 수많은 명곡들이 연주되였다. 공연에서 동포들의 심금을 제일 뜨겁게 울린 곡목은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였다.

연주를 들으며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은혜로운 사랑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이역의 아들딸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가사와 선률에 실려있기에 이 노래는 지금도 동포들의 눈시울을 축축히 적셔주고있는 것이다.

피눈물의 그 세월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등살을 벗기우던 력사의 수난자들과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바로 그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겨 극적인 운명전환을 이룩하지 않았던가.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애국의 키가 자라던 못잊을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수령님들의 뜨거운 은정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무대와 객석에 울려퍼진 한없는 그리움의 목소리들은 가장 진실하고도 뜨거운것이였다.

애국의 주로따라 끝까지

해마다 2월이면 오사까에서는 동포, 학생이어달리기 및 마라손대회가 열리군 한다. 애국의 주로따라 끝까지 달려가자는것이 그 주제이다.

지난 2월초에도 이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동포들은 지역별, 단체별로 맹훈련을 벌리면서 애국의 숨결을 같이하고 혈연적뉴대도 더욱 깊이하였다.

신호총소리와 함께 동포들은 출발선을 박차며 내달렸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앞서달린다!》

《분회장! 힘내십시오!》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였다. 주로에 나선 동포들은 애국의 한길에서 삶의 보람을 누리는 자기들의 긍지와 날로 억세여지는 애국의지를 주로에 새기며 힘차게 달리였다.

66번째로 열린 오사까동포, 학생이어달리기 및 마라손대회, 그것은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동요와 좌절을 모르는 동포사회의 거세찬 애국애족의 숨결,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켜가려는 동포들의 억센 지향을 보여주었다.

애국의 희열에 넘쳐 마라손주로를 달리는 오사까지역 동포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제 44차대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제 44 차대회 진행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류학동) 제 44 차대회가 2 월 26 일 총련 오사까부 본부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성상기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김일성**종합대학위원회 등 조국의 대학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보내온 축전이 랑독되고 축하영상편집물이 상영되였다.

대회에서는 《 류학동중앙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하여》,《류학동규약을 일부 개정할데 대하여》,《류학동 제 43 기 재정결산 및 제 44 기 예산안에 대하여》, 《류학동 제 44 기 류학동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중앙위원선거에 대하여》의안들이 토의되였다.

성상기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총화기간 류학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력사적서한관철의 첫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악성전염병의 대류행속에서도 일군들과 동맹원들의 각종 강습들을 진행하고 학생일군대렬을 확대하였으며 지부건설사업도 활발히 벌려 17 개 지부를 재건활성화하여 모든 지부를 튼튼히 꾸리는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난해 9 월 종합문화공연 《종달새》를 성과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일군들과 동맹원들의 불같은 결의를 과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류학동사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 관철에 철저히 복종지향시키며 조직이 동포대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사업, 동포청년학생들속에서 민족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 3 대애국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동맹대렬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사업보고를 대회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의안과 셋째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결과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상기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김상현부위원장이 다시 선출되였다.

2023 전국인대정협회의 조선족 대표 위원 직무리행 풍채록





















박세룡, 리룡희 정협 제 14 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당선

전국정협 14 기 1 차회의는 3 월 10 일 오후 제 3 차 전체회의를 거행해 정협 제 14 기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비서장, 상무위원을 선거했다.

그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4 기 전국위원회 조선족 위원 박세룡과 리룡희가 정협 제 14 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당선되였다.

박세룡 남, 1976 년생, 조선족, 길림성 연변 출신.

자연지리학자, 생태시스템 생태학자, 중국과학원 원사, 발전도상국과학원 원사, 북경대학 도시환경학원 생태학과 교수, 중국과학원 청장고원 지구과학탁월혁신센터 과학연구 골간, 연구원, 북경대학 리학부 부주임.

1999 년 7 월 북경대학 도시환경학과 환경과학 전공, 리학 학사학위 획득. 2004 년 6 월 북경대학 환경학원 생태학 자연지리학과 졸업 박사학위 획득. 2007 년 1 월-2010 년 7 월 북경대학 도시환경학원 연구원 담임 8 월 박사후 과정 졸업. 2010 년 8 월 북경대학 도시환경학원 교수 담임. 2021 년 11 월 18 일 중국과학원 리학부 원사로 당선. 2022 년 4 월 북경대학 리학부 부주임, 2022 년 11 월 발전도상국과학원 원사로 당선.

리룡희 남, 조선족, 1963 년생,

길림성 매하구 출신, 1985 년 1 월 중국공산당 가입,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세계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박사.

제 13 기 전국정협 상무위원, 길림성 정협 부주석, 당조부서기. 래원: 인민넷-조문판



제 6 회 무형문화유산 민족무용 양성반 수료식 연변군중예술관에서

3 월 5 일, 연변주위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연변주문화관광국,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주관, 연변군중예술관, 연변무용가협회에서 주최한 제 6 회 무형문화재 민족무양성반 수료식이 연변군중예술관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양성반은 산동, 흑룡강, 료녕 및 성내 부분적 지역에서 온 60 여명의 문화관 골간일군들이 참가했다. 강습과정은 조선족민속무용, 조선족무용기초, 조선족타악기 연주, 조선족무형문화재 무용류 리론강좌 등 실기와 리론을 겸하여 진행되였다.

양성반은 조선족 무형문화재와 전통무용을 보급, 계승하고 후비인재를 양성하여 조선족 전통문화와 전국 여러 형제민족 문화와의 교류를 촉진함과 아울러 상호 소통을 통해 련대감을 증진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연변군중예술관 김승활 관장은 "연변주위 선전부와 연변주 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양성반은 실천과 리론 지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민족예술 전승과 홍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 지역 문화일군들은 집중학습을 통하여 전업지식과 업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기타 형제민족들에게는 조선족 무형문화재나 전통예술을 전수함으로써 조선족과 연변에 대해 보다 립체적으로 소개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조선족 무형문화재는 모두 24 개(길림성: 18 개, 료녕성: 5 개, 흑룡강성: 1 개)인데 이 중 "중국조선족농악무(상모춤)"는 2009 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중국의 무형문화재는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 네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등록된 문화재들은 무형문화유산법에 따라 활동자금 등을 지원받으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연변군중예술관은 해마다 부동한 예술 분야의 강습반 개최를 비롯하여 대형문예활동 기획과 조직, 문예인재 양성, 문예리론 연구와 탐구, 민간문화유산의 수집정리와 전승, 대외문화 교류와 합작 등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오면서 지역과 조선족 사회에 문화예술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연변주의 '문화강주, 관광흥주' 전략에도 커다란 힘을 보태고 있다. /강빈 길림성특파원

꿈이 있는 녀성은 아름답다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3.8 부녀절 경축 및 2022 년도 총결대회 개최

[본사소식 최수향 기자] 3 월 4 일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3.8 부녀절 경축 및 2022 년도 총결대회 가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펼쳐졌다. 길경갑 회장을 비롯한 심양시조선족련의회 산하 여러 민간단체 책임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했다.

리경자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회장이 2022 년도 사업보고를 했다. 그에 따르면 2022 년도 협회는 무용반, 성악반, 배구대, 서향원, 시랑송학습반, 판소리학습반 등 여러 학습반을 꾸려 회원들의 업여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언어문자와 전통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협회는 또 지난해 위챗공공계정 <탑너머 시

>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회원들의 시랑송작품들을 공유해 회원들이 서로 배우고 장기를 선보이는 플랫폼을 제공해주었다.

이어 리회장이 2023 년에는 협회는 해마다 진행되는 정기행사를 펼치는 외에 우리말 시랑송 및 장기자랑 대회, 7.1 당의 생일 경축 및 문예공연활동, 제 1 기 녀성협회컵 배구초청시합, 협회 35 주년 경축대회 및 송년회, 따뜻한 사랑



나누기 활동 등 풍성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회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길경갑 심양시조선족련의회 회장은 축사에서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전체 회원들에게 3.8 국제부녀절 축하인사와 함께 꿈이 있는 녀성은 아름답다면서 2022 년도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에서 거둔 성과를 긍정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언어문자와 전통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하에 설립된 여러 학습반을 잘 꾸려나갈 것을 격려했으며 녀성협회에서 여러 브랜



드행사를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을 희망했다.

표창대회에서는 협회에 공헌이 많은 협회 간부 6 명에게 장미상을,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회원 31 명에게 우수회원상을, 협회에 공헌이 많은 기업인과 회원 6 명에게 공헌상을, 협회 봉사에 적극적인 회원 3 명에게 봉사상을, 협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과 사회유지인사 8 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 흥겨운 3.8 부녀절 경축문예공연이 있었다. 이날 회원들은 시랑송 <녀성협회 축시>, 광장무, 녀성이중창 <흥부자>, 소합창 <마음 속의 붉은 태양>, 판소리 <제비로정기>, 색소폰 연주 <잠들지 못하는 오늘밤>, <노들강변>, 시랑송 <우리말 랑송을 사랑한다>, 표현창 <마음 속의 고향> 등 알심들여 준비한 여러 종목을 선보이며 3.8 국제부녀절을 경축하고 새로운 한해에 새로운 출발을 잘하자고 약속했다.



상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 2022-2023 리사회 회의 성공 개최

2023 년 3 월 11 일,상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이하 략칭: 후원회) 2022-2023 리사회 회의가 상해시 민항구 련화로 1733 번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였다.

회의는 후원회 부회장 겸 비서장인 오철호 선생의 사회하에 사업회의와 친목행사 두개 부분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사업회의 첫순서로 2022 년도 후원회 주요사업보고, 후원항목 집행상황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후원회 장정의 선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였으며 회장에 김홍란, 부회장 겸 비서장에 임호, 부회장에 천명철과 박홍월, 부비서장에 한문길, 감사에 류림걸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였다. 그 다음 순서로 김홍란 신임회장의 임기내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고 임호 비서장의 장정 수정 설명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김홍란 신임회장의 제의하에 고문단이 설립되였고 표결을 거쳐 리양근, 장동진, 박철, 강정숙이 고문으로 선출되였다.

친목행사 첫순서로 래빈 소개가 있었고 그다음 리양근 전임회장의 환영인사가 있었으며 뒤이어 상해조선족대학생련합회 최현호 대표의 감사인사, 상해조선족로인협회 구송회 회장의 감사인사, 상해조선족주말학교 박형군 교장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계속하여 후원회 회장단 리임,취임 행사가 진행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진행되였다.

지난 2018 년 12 월 7 일 설립된 상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는 포용, 단결, 발전, 성실, 전문성, 규범성, 신뢰, 효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인과 사회 각계 구성원들의 기부와 모금을 통해 상해 및 절강, 강소지역의 조선족 교육, 문화, 사회봉헌 사업을 위한 공익활동을 후원함으로써 나아가 상해조선족사회의 안정,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형군



배움에는 끝이 없어라 -청도조선족교육문화원 고고성



김청호 원장(좌 3)이 귀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춘삼월을 맞으며 청도 한민족사회에 경사가 났다.

지난 3 월 1 일 오전 10 시, 청도조선족교육문화원(원장 김청호)이 청도시 성양구 설악산민속궁 연회장에서 고고성을 울렸다.

소개에 따르면 청도조선족교육문화원의 설립 취지는 백여년의 이주력사 환경속에서도 교육을 중시해 온 선배들의 우량한 전통을 이어받고 계승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화로운 사회구축에 힘을 이바지하며 날로 침체해지는 우리민족 교육문화를 고양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학구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통, 교류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을 더욱 감칠맛 나게 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날 설립식에는 흑룡강신문사 박영만 사장, 흑룡강민족출판사 류상해 사장, 중국조선족민간예술단체련합회 방화 회장, 청도조선족녀성협회 정인순 회장, 청도조선족기업가

협회 성양지회 허송호 회장, 청도조선족교사친목회 김성기 회장, 청도작가협회 리문혁 회장, 해안선 잡지사 박준기 사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과 학원생을 포함한 100 여명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행사는 리근석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김청호 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산동반도에는 무려 20 여만을 헤아리는 조선족들이 집거하여 부지런히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우리들에게는 수십년간 분투하여 건설해 놓은 삶의 터전을 더욱 비옥하게 가꾸아야 할 책임이 놓여져 있다"면서 "흑룡강신문과 함께하는 청도조선족교육문화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 아름다운 해변도시 청도에서 보다 성숙되여가는 민간단체로 거듭나게 할것이다"고 다짐했다.

고향이 흑룡강성 밀산시인 김청호 (55 년생) 원장은 젊은 나이에 교장, 향장 사업을 하였으며 교육국에서 퇴직, 흑룡강국제경제무역학원 원장을 력임하기도 했다.

흑룡강신문사 박영만 사장은 축사에서 "청도조선족교육문화원의 출범은 한겨레사회 일대 경사인것 같다. 교육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령혼이라고 말한다. 태양아래 가장 신선한 직업이 교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라는 주제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청도조선족교육문화원이 청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조선족동포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조선족녀성협회 정인순 회장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 청도 조선족지력사회에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교육문화원적 차원의 민간 단체는 별로 없다. 사재를 털어 교육문화원을 설립한 운영진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그대로의 창업정신으로 잘 운영하여 우리민족 교육의 문화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시킬 것을 바라며 우리 사회 지성인들도 앞장서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중국조선족민간문화예술단체련합회 방화 회장과 청도교육문화원 녀성부 김성숙 부장도 교육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축사했다.

이어 하이라이트인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다. 커팅식에는 김청호 원장, 박영만 사장, 정인순 회장, 방화 회장, 김성기 회장, 허만석 선생이 함께 했다.

이어 임명장 발급식이 있었다. 김청호 원장이



수석 부원장 리동필, 부원장 리성택, 리근석, 송명환,총무 리순희, 사무국장 리계옥에게 임명장을 발급했다.

그외 원우회장 장원화, 예술단 단장 손희숙, 녀성부 부장 김성숙, 선전부 부장 황용남, 악단 단장 박지화씨에게 임명장을 발급하며 앞으로 많은 수고 해줄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고문 허만석, 법률고문 김옥, 리사장 리동춘, 리사에 방일호, 전인화, 림호범, 김철석, 리인식 등을 위촉했다.

공식 행사를 마치고 2 부 행사에는 귀빈과 학원생들이 함께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장기자랑을 펼쳤다.

청도조선족교육문화원 학습장소는 청도시 성양구 보룡광장 2 층에 자리 잡고 있다.

젊은 시절 가족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제 이곳에서 행복한 인생 제 2 막을 열어가길 바란다. /리계옥 특약기자

조 선 춤





조선춤은 수천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조선춤은 조선사람의 체질과 미감, 민족적정서를 반영하여 창조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고유한 기법으로 발전하여온 우리민족의 우수한 무용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춤은 상반신을 쓰는 동작이 많은 반면에 하반신을 쓰는 동작이 적으며 서양춤은 하반신을 쓰는 동작이 많은데 비하여 상반신동작이 적다. 조선춤도 팔동작을 비롯한 상반신을 쓰는 동작이 많다.

그러나 팔동작을 위주로 하면서 발동작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몸전체를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는데 조선춤의 고유한 멋이 있다.

조선춤은 움직이는 정도가 알맞춤하고 힘있고 부드러우며 아름답다.

조선춤은 과격한 동작보다 부드러운 곡선적인 놀림이 더 많으며 지나치게 뛰거나 빠르게 회전하는 동작이 없다.

상반신동작을 위주로 한다고 하여 손동작을 많이 하지 않고 팔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조형적형태미가 부드럽고 품위있으며 우아하고 아름답다. 조선춤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지 않다.

조선춤은 조화롭게 다듬어지고 춤가락이 세련되고 점잖은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조형적인 표현력이 강하고 극적인 행동선이 뚜렷한 조선춤에서는 조용하고 우아한 흐름속에서 약동하는 기백을 표현할수 있고 박력있는 흐름속에서 유순한 정서를 표현할수 있다. 이러한 률동적특징들은 우리 민족무용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오늘 조선춤은 민족춤가락을 살리면서도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게 잘 다듬어진 무용형식으로 더욱 발전하고있다.



조선말의 어음구조

조선말은 말소리에서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다. 모음 21 개와 자음 19 개로서 모두 40 개의 말소리를 가지고있다.

모음은 홑모음 10 개(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와 겹모음 11 개(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ㅝ, ㅙ, ㅞ, ㅢ)로 되여있다.

조선말 홑모음의 특징은 10 개가 다 질적표식에 의하여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모음들이라는데 있다. 일련의 인디아유렵언어들에서도 홑모음의 수가 적지 않으나 질적표식에 의하여 구별되는 모음이 대개 5~8 개정도이며 나머지는 량적표식 즉 길이, 강약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모음들이다. 질적표식에 의하여 구별되는 홑모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것이 조선말모음체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조선말에는 중국-티베트어들이나 동남아시아어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세개소리, 네개소리요소의 겹모음이 없다.

모음은 《ㅡ, ㅣ》를 제외하고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있어서 서로 가까우면서 발음의 특성이 비슷한것끼리 짝을 이루는 독특한 체계성을 띠고있다. 《ㅏ-ㅓ》, 《ㅗ-ㅜ》와 같은 짝이 그러한것이다. 이 체계성은 우리 말에 풍부히 발전해있는 모음조화현상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짝을 이루고있는 모음들가운데서 앞의것은 뒤의것보다 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교적 밝은 느낌을 주는 모음이므로 밝은모음이라고 하며 짝을 이룬 뒤의것은 비교적 어두운 느낌을 주는 모음이므로 어두운모음이라고 한다.

모음조화에서는 밝은모음은 밝은모음끼리, 어두운모음은 어두운모음끼리 각각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례컨대 동사 《살다》, 《보다》의 말줄기 《살》과 《보》에는 밝은모음 《ㅏ》, 《ㅗ》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과거시칭토가 붙을 때에는 밝은모음이 있는 《았》이 어울려 《살았다》, 《보았다》로 되는것이다.

이와 반대로 동사 《썰다》, 《불다》의 말줄기 《썰》과 《불》에는 어두운모음 《ㅓ》와 《ㅜ》가 있기때문에 과거시칭토가 붙을 때에는 어두운모음이 있는 《었》이 어울려 《썰었다》, 《불었다》로 되는것이다.

또한 말줄기들에 이음토 《아/어》가 교착하는데서도 모음조화가 작용하여 《살아》와 《보아》로, 《썰어》와 《불어》로 되는것이다.

그리고 본딴말에서도 모음조화현상이 뚜렷이 지켜져 《종알종알》, 《중얼중얼》과 같이 되는것이다.

한 언어의 말소리가 40 개나 된다는것은 적지 않은 수량이라 할수 있다. 더구나 조선말말소리는 모음의 수가 많은것이 특징적이다.

모음이 21 개, 자음이 19 개의 비례를 이루는것은 소리마디를 매우 풍부하게 만들고있는 요인으로 된다.



대체로 언어에서 소리마디가 구성되려면 매개 소리마디에 모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같은 40 개의 소리마디라도 모음이 10 개, 자음이 30 개 되는 언어의 소리마디보다는 그 절반절반의 비례인 언어가 훨씬 많게 된다.

더구나 조선말에는 독특하게도 속터침소리 즉 받침소리가 있기때문에 그 매개 받침소리가 붙어서도 딴 소리마디를 또 이루는것만큼 그것은 훨씬 많아진다.

례컨대 자음 《ㄱ》과 모음 《ㅏ》로서 소리마디 《가》가 이루어질뿐아니라 《각, 간, 갈, 감, 갑, 갓, 강, 갖, 같, 갚, 갛》들도 하나의 소리마디를 이루므로 그 수는 훨씬 늘어나는것이다.

소리마디가 이처럼 풍부한 언어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리마디를 가지므로 조선말로는 세계 여러 언어의 말소리를 거의나 자유롭게 다 적어낼수 있다.

례컨대 《ㅓ, ㅡ, ㅚ, ㅟ》와 비슷한 모음이 없는 언어가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데 이런 언어들로는 이 모음이 있는 나라 말을 적거나 또는 배우기가 어려운것이다.

또한 조선말의 말소리는 발음이 순하고도 조화로우며 아름답게 울려나올수 있도록 발전해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울림소리를 이루는 모음이 많은데다 자음가운데서도 《ㄴ, ㄹ, ㅁ, ㅇ》 등 울림자음이 4 개나 있으므로 울림소리가 전체 말소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조선말의 발음은 전반적으로 그 울림이 고르로와서 류창하고 아름답다. 즉 꺽꺽 막히는 소리가 없는것이다.

또한 조선말의 모음에서는 혀의 앞부분을 높여서 내는것과 뒤부분을 높여서 내는것이 잘 배합되여있으므로 말소리가 밝은것과 웅근것이 조화롭게 어울려있다.

조선말에서는 또한 받침소리가 발전해있어서 뒤에 모음이 잇달려오면 그것이 접미사 또는 토인 경우에는 받침소리가 내려가서 이음소리가 된다.

말소리의 발음과정에 주고받는 영향에 의하여 생기는 다양한 결합적변화와 전통적인 관습에 의하여 생기는 위치적변화로 하여 매우 아름답고 류창하게 들린다.

말소리의 길고짧음과 높낮이가 잘 배합되여 아름다운 선률이 이루어지며 말의 성격과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어조, 억양을 나타냄으로써 감정적색채가 잘 표현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

존경하는 총서기동지,

나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총서기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총서기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중책을 계속 지니게 된것은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의 표시로 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1차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중국공산당은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최근년간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이 총서기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중국인민이 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당 제20차대회가 제시한 과업관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조중 두 당,두 나라는 지지와 련대를 긴밀히 하면서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가 두 당,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과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게 변함없이 심화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총서기동지가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112(2023)년 3월 10일 평 양



최룡해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 조락제동지에게 10 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4 기 제 1 차회의는 당 제 20 차대회과업관철에 분기해나선 중국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인민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려정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축전은 지적하였다.

두 당,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동해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축전은 그가 건강할것과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진심으로 축원하였다. (끝)



김덕훈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에게 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덕훈동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로 임명된 리강에게 11 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중국인민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두 당,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시키며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축전은 그가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상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축전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진강에게 12 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전례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자기 특유의 생명력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시키며 두 나라 외교부문들사이의 전략전술적협조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용의를 표명하면서 축전은 그가 건강할것과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

외교부, 미한련합군사훈련에 깊은 관심 표시

왕문빈 외교부 대변인은 14 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한 련합군사훈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각측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길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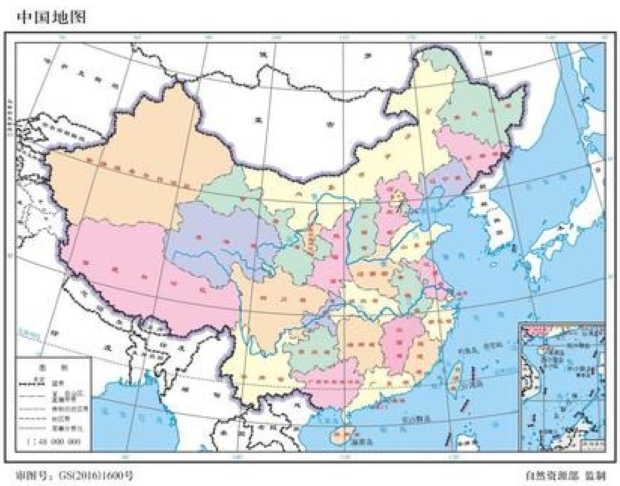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13 일부터 23 일까지 규모와 지속시간이 례년을 훨씬 초과한 '자유의 방패' 련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미국과 한국이 조선핵위협을 련합 방어하는 태세를 강화했다. 최근 조선이 대외로 미국과 한국이 도발적인 언행과 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빈번하게 요구했다.

이에 왕문빈 대변인은 조선반도 정세가 오늘까지 발전한 문제점은 분명하다며 관련측은 조선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에 압력과 위협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반도 정세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관련 각측은 자제하고 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표했다. 신화사

최신! 중국 지도, 이렇게 표시해야 규범적!

중국 자연자원부는 14 일 <공개지도내용 표시규범 >을 인쇄발부해 공개지도 또는 부착지도 도형제품의 내용표시는 마땅히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판도는 한 국가가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강역(疆域)이며 국가의 주권과 령토의 완정함의 상징이다. 지도는 국가판도의 가장 중요한 표현형식으로 국가의 주권범위를 반영하는



바 엄숙한 정치성, 엄밀한 과학성 및 엄격한 법적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영화, 드라마, 뉴스보도 등에서 '문제지도'의 잘못된 사용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규범은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지도내용표시를 규범화했으며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지리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대중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다.

규범에 따르면 중국 전체도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중국령토의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중국 전체도는 대륙, 해남도, 대만섬 외에 남해제도, 조어도 및 그 부속섬 등 중요한 섬도 표시해야 하며 남해제도를 부도형식으로 표시할 때 중국지도의 주지도 남쪽에 해남도의 최남단을 그려야 한다.

셋째, 지도에 표시된 내용은 중국령토의 완정한 표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중요한 섬 등 국가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가려서는 안된다.

대만성지도 표시규정에 대해 규범은 대만성은 지도에서 성급 행정단위로 표시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시는 성급 행정중심으로 표시된다(도례에 성급 행정중심이라고 주기). 대만성의 신북시, 도원시, 대중시, 대남시, 고웅시는 지급 행정중심으로 표시한다. 동시에 규범은 대만성지도의 도폭(图幅)범위는 조어도와 적미서('대만섬'으로 명명한 지도 제외)를 그려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어도와 적미서(赤尾屿)는 대만성 전체도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본도와 조어도, 적미서의 지리적 관계를 부도로 반영할 수도 있다.

이 규범은 또 남해제도 지도표시, 특별행정구 지도표시 및 세계 각국(지역) 변계표시 규범 등에 대해 규정했다. 해당 규범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전국 인구 최신수치 공포!

오늘(28 일) 국가통계국은 <중화인민공화국 2022 년 국민경제사회발전 통계공보>를 발표했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년말 전국 인구는 14 억 1175 만 명으로 그 전해 년말보다 85 만명 감소했으며 그중 도시 상주인구는 9 억 2071 만 명에 달했다. 년간 출생인구는 956 만명으로 출생률이 6.77‰에 달하고 사망인구는 1041 만명으로 사망률이 7.37‰에 달하며 자연성장률은 -0.60‰이다.

설명: 전국 인구는 우리 나라 대륙 31 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현역 군인의 인구를 말하며 31 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거주하는 향항, 오문, 대만 주민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

2022 년 말 0 세-14 세(만 15 세 미만 포함) 인구는 2 억 3908 만명, 15 세-59 세(만 60 세 미만 포함) 인구는 8 억 9263 만명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37 년간 이곳의 동북호랑이 8 마리에서 근 천마리로 발전!

한차례 봄눈이 지나간 후 호랑이들은 점점 더 활약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새하얀 눈속에서 털빛이 선명한 동북호랑이 몇마리가 흑룡강성 동북호림원내에서 한적한 정원을 거닐며 '봄날 맹호희설도(春日猛虎戏雪图) 를 그렸다.

동북호림원은 할빈시 송화강 북안에 위치한 중국 횡도하자고양이과동물사육쎈터에 소속된 3 개 호랑이원 가운데의 하나로서 300 여마리의 부동한 년령대의 동북호랑이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1986 년 설립된 이래 중국횡도하자고양이과동물사육쎈터내의 동북호랑이는 최초의 8 마리에서 현재의 근 천마리로 발전했다.

수의사 서해도(徐海涛)는 이미 호림원에서 10 여년간 일했는데 "나는 이곳의 호랑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다 봤다. 처음 왔을 때 건강검진을 하고 수술을 할 때 무서웠지만 이제는 능숙해졌다."고 말했다. 서해도는 호림원내에는 수술실 및 X 선기, B 초음파기 등 설비가 갖춰져있어 동북호랑이에 대한 구조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년래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 위치추적목걸이, 적외선카메라 및 기타 장비가 동북호랑이의 모니터링 및 구조에 널리



사용되였으며 구조된 동북호랑이가 산과 들로 방출된 후 위치추적목걸이 및 기타 장비가 다양한 데터를 기록할 수 있어 야생동북호랑이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얼마전 흑룡강성 쌍압산변경관리지대 사패변경파출소는 영상모니터링을 통해 요하관할구에서 야생동북호랑이 종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2 월이래 쌍압산변경관리지대가 세번째로 관할구에 동북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국가림업초원국 고양이과동물연구쎈터 연구원 고가음은 생태환경이 회복됨에 따라 노루, 꽃사슴 등 동물들이 많아지면서 호랑이들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나라 생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新华视点丨权威专家解读职工医保改革热点

来源：新华网

近期，广东、湖北、四川等省份实施职工医保门诊共济保障改革，明确开展职工医保门诊统筹，按规定报销参保人普通门诊费用，并同步调整职工医保个人账户计入办法。围绕公众关心的焦点问题，“新华视点”记者采访了权威专家和业内人士。

福建省三明市第一医院的医保办工作人员（右）向前来咨询药品报销问题的居民讲解相关政策（2020 年 11 月 18 日摄）。新华社记者姜克红 摄

焦点一：个人账户的“钱”少了会影响医保待遇吗？

随着多地政策落地，不少参保人发现自己医保账户的“钱”少了，担心会影响个人医保待遇。

据了解，近期多地出台的医保改革方案有共同点：职工医保个人账户当期计入的金额有所变化。对在职职工而言，原本由单位缴费划入的部分不再划入，被纳入统筹基金；对退休人员而言，个人账户计入从过去的与本人养老金挂钩，过渡到定额划入，定额标准与统筹地区改革当年人均养老金挂钩。

单从账面上看，个人账户新计入的“钱”的确变少了，而且有些人的降幅不小。这不禁让人疑惑，减少的“钱”去哪儿了？会影响个人医保待遇吗？

“医保个人账户上的‘钱’减少，并不意味着参保职工医保待遇的降低或损失。”中国社科院公共经济学研究室主任王震说，个人账户减少的“钱”将转化为统筹基金“大池子”的增量，用来承担以往个人账户“小池子”需要支付的普通门诊费用，且个人账户之前的累计结存仍归个人使用，实现保障“增量”。

2021 年 4 月，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建立健全职工基本医疗保险门诊共济保障机制的指导意见》，明确调整统筹基金和个人账户结构后，增加的统筹基金主要用于门诊共济保障，提高参保人员门诊待遇。这也就是说，改革后，以前不能报销的普通门诊费用可以报销了。

以武汉市退休参保职工周某为例。其年养老金收入 5 万元，改革前个人账户每年划入 2400 元。周某患有脑梗，但因当地没有门诊统筹政策，在门诊看病无法享受报销。改革后，他的个人账户年划入调整为 996 元，在某三级医院门诊就医发生门诊费用 7150 元后，按照新的门诊统筹政策报销，除去门槛费 500 元，按三级医院 60%的报销比例，即可报销 3990 元。这也就是说，虽然周某改革后个人账户当年少划入 1404 元，但其享受待遇却增加了 2586 元。

焦点二：改革职工医保个人账户是因为统筹基金没钱了吗？

有质疑声认为，改革职工医保个人账户是因为统筹基金没钱了，要用个人账户“补窟窿”。对此，专家表示，这是由于对我国医保基金收支情况不清楚而产生的误解。

数据显示，2021 年职工医保统筹基金收入 11864 亿元，支出 9321 亿元。也就是说，统筹基金不仅收支平衡，而且略有结余，所以“统筹基金没钱了”并不成立。

既然如此，有公众疑惑，为何把个人账户的“钱”转到统筹基金，用于门诊共济保障，让别人花自己的“钱”？

“医疗保险归根到底是一种社会保险，这就意味着它具有互助共济、责任共担、共建共享的性质。”王震说，参保人年轻时得病少，到年老时容易生病，看病吃药仅依靠个人账户积累是有限的，把大家的钱放在一起，可以实现用大数法则化解社会群体的风险，更大范围满足公众医疗需求。

王震说，调整个人账户是调减当期计入，没有动个人的历史结存。要认识到，无论是个人账户还是统筹基金，都属于已经缴纳的医疗保险费用，是用

于解决公众防病、治病问题而筹集、分配和使用的“钱”。

改革前，个人账户无法给别人使用，“有病的不够用、没病的不能用”，这就逐渐出现了过度沉淀、共济性不够、欺诈骗保等弊端。

“在医保战略性购买的框架下，优化门诊保障待遇是结构性调整。”国家卫健委卫生发展研究中心医疗保障研究室主任顾雪非介绍，这是在不另外筹资、不新增单位和个人缴费负担的前提下，提高门诊保障水平。

焦点三：个人账户改革对老年人有什么影响？

有一些老年人看到改革后个人账户“钱”少了，担心看病吃药使用受限。

指导意见明确，普通门诊统筹保障水平以 50%起步，并要求各地在此基础上对退休的老年人再给予倾斜支付。

以呼和浩特市为例，在开通门诊统筹保障后，退休人员门诊支付比例提高，各级医疗机构在原办法的基础上提高 5%，同时进一步提高门诊统筹年度最高支付限额，退休人员待遇支付由原来的 4000 元提高到 6000 元，高于在职职工。

此外，在普通门诊保障健全之前，不少地区先行建立了门诊慢特病保障机制，用统筹基金支付常见于老年人的慢性病、特殊疾病在门诊发生的费用。近期，一些地方适当扩大门诊特殊病病种。如江苏南京在原 4 大类门特病种基础上，新增 9 类病种；武汉将高血压、糖尿病等慢性病特殊疾病病种由 28 类增加到 37 类，基本病种从 32 种增加到 70 种等。

通过对多地职工医保个人账户改革方案的对比，还可以发现一个共同点——个人账户使用范围拓宽，使用主体从个人扩宽到配偶、父母、子女等，对象范围从药品支付到医疗器械、医用耗材等。这对老年人来说更是个利好。

顾雪非表示，改革后，参保人可以把个人账户的“钱”用给老人等其他家庭成员，形成家庭内部“小共济”，提高家庭应对医疗风险能力。

焦点四：如何提高百姓对改革的获得感？

随着各地改革方案落地，也有人对改革提出意见：以前在家门口药店买药，现在为了报销还要跑到定点医疗机构门诊挂号；门诊统筹报销设置起付线、最高支付限额，保障力度不如住院报销等。

“参保人对改革感受最为直观。”顾雪非说，为了让改革红利真正惠及最广大群众，需要充分考虑对老百姓、医药机构等利益相关方的影响，多方共同发力，方便老百姓就医购药。

根据相关部署，职工医保门诊共济保障改革将通过 3 年完成。目前，大多数地区已经公布职工医保个人账户改革、门诊共济保障机制的实施细则，但各地经济发展水平、医保统筹力度等情况存在差异，相应的改革策略与举措不尽相同。

受访专家与业内人士建议，要切实回应群众提出的合理诉求，在提高医疗保障服务的便捷性和可及性、加强政策解读等方面着手，切实破解群众求医问药难题。

“改革过程中存在不同声音是正常的。”王震说，改革政策效益的显现也需要时间，要同步推进协同配套服务，如合理调整门诊报销的起付线与最高支付限额、尽快将符合条件的定点零售药店纳入门诊统筹、探索将符合条件的“互联网+”医疗服务纳入保障范围等。

不少地区采取分步调整，促进政策平稳过渡。也有一些地区降低门诊报销起付线、提高报销限额等，如广州在门诊报销由月度限额调整为年度限额的基础上，提高了报销金额；北京不再设置医保门诊最高支付限额。

记者了解到，截至发稿时，一些地方已进一步优化有关配套措施。武汉市医保局发布公告，在前期已经公布的 1000 多家零售药店试点的基础上，将第三批 4065 家定点零售药店纳入职工医保门诊统筹保障范围。



农业农村部：开展高价彩礼等重点领域突出问题专项治理

来源：央视新闻

农业农村部2月21日发布《关于落实党中央国务院2023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部署的实施意见》，提出加强农村精神文明建设，持续推进农村移风易俗。组织开展移风易俗宣教活动，扎实开展高价彩礼、大操大办等重点领域突出问题专项治理。引导各地在村规民约中充实简办婚丧喜事、减轻人情负担、反对铺张浪费、倡导孝老爱亲等内容。遴选推介第四批文明乡风建设典型案例，推广乡风文明建设经验。

辽宁开展食品安全三年攻坚行动

3月15日，记者从省市场监管局了解到，我省开展食品安全三年攻坚行动，保障全省人民“舌尖上的安全”，坚守食品安全底线。

我省将全面压实食品安全属地责任、监管责任和主体责任，紧盯关键少数，实现责任到人。聚焦校园、农村、网络餐饮等重点领域，以及“两超一非”、餐饮具清洗消毒、特殊食品标签、抽检监测不合格等重点问题，深化整顿治理。综合运用监督检查、抽检监测、投诉举报、明察暗访等手段强化风险隐患排查处置。强化监管执法制度机制运行，严惩重处重大违法行为，落实食品行业从业禁止、终身禁业规定。实施审慎包容监管，助推产业发展，为建设食品工业大省服务。推进国家食品安全示范城市创建，发挥食品安全专家、食品安全协管员、食品行业协会等积极作用，以宣传科普活动等多种形式全面推动食品安全社会共治，不断提升人民群众食品安全获得感、满意度。（赵铭） 来源： 人民网

柳树芽也能吃？不过要注意这点

来源： 北京青年报

柳树发芽意味着春天的到来，柳树芽是春天的信使。“五九六九，河边看柳”。说是看柳，其实是看柳树发芽。全球的柳树有520多种，我国就有250多种。主要树种有旱柳、垂柳和白柳，还有爆竹柳、圆头柳、白皮柳、云南柳、紫柳、腺柳、大白柳、大叶柳、细柱柳、棉花柳、杞柳等。柳树陪伴着我们长大，柳哨、柳树帽、柳条包等都是许多人童年的美好回忆。但你知道吗，柳树其实不仅能玩、能用，还可以入药，可以食用。文献记载，柳花、柳叶、柳枝、柳根、柳皮、柳屑等都可以入药。

1.柳树芽



柳树芽要在没有开花前采摘，开花后就老了，不好吃了。

采摘后，先把柳树芽用开水烫一遍，然后用凉水把苦味泡出，放上盐，淋上麻油和香醋，或拌上蒜泥、姜汁和黄酱即可。

也可以和玉米面和在一起贴饼子；还可以把柳树芽拌在饭里或和面蒸后吃。也有把柳树芽晒干到夏天

用豆油炸着吃的。
柳树芽还可以泡茶。选用刚萌出的嫩芽晒干，然后同茶叶一起用开水冲泡。闻之清香，饮之可口。

2.柳树叶
关于柳树叶的营养成分，据相关研究成果显示，柳树叶中含有粗蛋白16.12%、粗脂肪3.01%、粗纤维15.13%、粗灰分8.65%、钙1.89%、磷0.31%、单宁1.32%。

有一些地方有吃柳树叶的习惯。柳树叶每年春夏两季都可采摘，味道有点苦。做法很多，如氽水凉拌、摊饼、蒸包子、包饺子、炒鸡蛋、柳叶鱼丝等。
但需要注意的是，柳树的叶和皮有毒，中毒后会引起冒汗、口渴、呕吐、血管扩张、耳鸣、视觉模糊，严重时会出现呼吸困难、昏睡终日、丧失知觉等症状。所以，从食品安全和环境保护的角度出发，稍微吃一点尝鲜可以，常吃就不必啦！ 文/马博士健康团



春季喝茶必知的六大真相

来源： 北京青年报

春天是喝茶的好时节，西湖龙井、碧螺春、六安瓜片等绿茶的最佳采摘季节也是春季。经过一冬春的休养，此时采摘的茶叶不仅口感绝佳，营养也十分丰富。推荐朋友们春季常喝些淡茶水。

一、喝茶有哪些好处？

1.喝茶有助于抗氧化。
茶叶含抗氧化剂茶多酚，研究表明，茶多酚清除自由基的作用是SOD（超氧化物歧化酶）的9倍，是维生素E的18倍。

2.喝茶有助于预防辐射伤害。
茶多酚及其氧化产物具有吸收放射性物质的作用。

3.喝茶可以提神醒脑，利尿解乏。
茶叶中的咖啡因能增强大脑皮质的兴奋过程，使人精神振奋，增加思维和记忆能力。喝茶还有利尿作用，能减少有害物质在肾脏的停留时间，并有助于尿液中乳酸的排出，缓解疲劳。

4.喝茶有助于降脂、消化和减肥。
茶叶中的咖啡因、维生素B1、维生素C都能提高胃液的分泌量，帮助消化。茶中含有的芳香族化合物还有减脂的功效。

二、喝茶最好的时间是什么？

在饮用时间上，建议和一日三餐隔开一段时间。
饭前饮茶会冲淡胃酸，影响食物的消化吸收。而饭后饮茶过多，则可能影响一些矿物质，如钙、铁、锌等的吸收。

三、每天喝多少茶比较合适？

喝茶忌贪多贪浓。正常人，特别是中老年人，每天4-5杯为宜，以淡为好。体内水分过多会增加心、肾负担。浓茶会使大脑过分兴奋、心跳加快，导致尿频、失眠等。

四、喝绿茶比红茶更好吗？

绿茶、红茶各有各的好处。绿茶由于不是发酵茶，其营养成分如茶多酚、咖啡因等保留得比较多。红茶在发酵的过程中，虽然茶多酚、咖啡因等营养物质在减少，但这更适合对咖啡因不耐受的人饮用。
总体来说，如果不耐受茶多酚、咖啡因，喝了之后心慌、胃痛，可以选择红茶；如果感觉喝了绿茶很舒服，就可以选择绿茶。

五、可以用保温杯泡茶喝吗？
用保温杯泡茶，茶叶长时间浸泡于高温水中，茶多



酚、单宁等物质会大量浸出，使茶水颜色浓重、有苦涩味。

同时，由于一直保持很高的水温，茶中的芳香油更易挥发，茶香减少，而且，维生素 C 等营养物质还会遭到破坏，从而降低了茶的保健功能。

一般来说，如果想喝热茶，可以用紫砂壶或陶瓷茶具冲泡，茶泡好了以后，再倒入保温杯中。

六、女性生理期别喝茶？

茶叶虽好，但是女性朋友在以下两个特殊的时期，不要喝太多茶。

一是生理期，女性在生理期期间，会消耗掉体内大量的铁，而茶叶中鞣酸含量高，会降低人体对铁的吸收。

二是更年期，更年期女性常有头晕和浑身乏力的感觉，有时还会出现心跳加快、易怒、睡眠品质差等现象，这种情况若再喝太多的茶可能会加重这些不适。 文/于康（北京协和医院临床营养科教授）

连花清瘟在防治甲流中的作用

来源： 中国网健康



最近不少人纷纷表示，“现在办公室里到处听到同事的咳嗽声，感觉很严重”、“感染了甲流，别提有多难受了”。那么，甲流到底是什么？该如何防治呢？

甲流到底是什么

流感，全称是流行性感冒病毒，主要有甲、乙、丙、丁四型，目前感染人的主要是甲型流感，包括 H1N1 亚型、H3N2 亚型，乙型流感等。

虽然名字里有“感冒”，流感却比普通感冒严重得多。甲流常见的临床表现为发热、头痛、流涕、咽痛、干咳、全身肌肉、关节酸痛不适等，其中部分人可能会出现呕吐和腹泻等消化道症状。

甲流该如何防治

预防甲流，最有效的方式是接种流感疫苗，因为每年的流行病毒都不相同，所以建议大家新一年还是要提前接种。除了流感疫苗外，甲流其他的防护措施与新冠防护基本相同。尽量少去人员密集区域，如果去就戴好口罩，在公共场合咳嗽和打喷嚏时，尽量用手臂、纸巾遮住口鼻。回家后换下外衣，家里定时开窗通风。

治疗上，目前临床上也有明确证据治疗流感的药物，特殊时期可以备点在身边。比如国家卫健委《流行性感冒诊疗方案》2018 版、2019 版、2020 版推荐的中成药连花清瘟，纯中药制剂，不良反应小，适合绝大部分人群。并且自上市以来，连花清瘟数十次被国家卫健委、国家中医药管理局等部门列入防治甲流、乙流等传染性疾病的诊疗方案用药，权威性上可以放心。

值得一提的是，在 2009 年甲流大流行期间，循证医学研究已经证实，连花清瘟在降低甲流患者疾病严重程度方面具有显著效果，可缩短甲流患者发热、头痛、肌肉酸痛、乏力等流感症状持续时间。央视新闻联播、人民日报等多家国家主流媒体报道了中药连花清瘟具有明确抗甲流病毒作用新闻。近期，北京、上海、四川、河北、陕西、重庆等地相关部门陆续发布 2023 年春季流感中医药防治方案，连花清瘟也列入推荐目录。

不过需要注意的是，如果在感染甲流后身体出现明显不适，需要及时前往医院，听医生建议检查胸部平片或者胸部 CT，并遵从医嘱治疗。（逸轩）

국제단신

guojiduanxin

중국 외교부,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립장〉 발표

2월 24일,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립장〉을 공식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각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은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각국의 주권, 독립, 령토완정은 확실히 보장되여야 한다. 국가는 대소, 강약, 빈부를 불문하고 일률로 평등하며 각측은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국제법은 평등하고 통일되게 적용되여야 하는바 이중자대를 취해선 안된다.

2. 랭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한 나라의 안전은 다른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대가로 보장되여서는 안되며 지역 안전은 군사집단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확장하는 것으로 보장되여서는 안된다. 각국의 합리적인 안전 리익과 관심사는 중시되고 적절하게 해결되여야 한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은 없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전관을 견지하여야 하며 세계의 장기적인 안전을 념두에 두고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전 틀의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자국의 안전을 타국의 불안전을 기반으로 확보하는 것을 반대한다. 진영 대결을 방지하고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3. 휴전해야 한다. 충돌과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각측은 리성과 자제를 유지하고 붙는 불에 키질 하지 말며 갈등을 격화시키지 말고 우크라이나 위기가 더 악화되거나 통제 불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씨야와 우크라이나가 마주보면서 나아가며 가능한 한 빨리 직접 대화를 재개하며 정세의 점진적 완화를 추동하여 최종 전면 휴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4. 평화회담을 열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은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권하고 담판을 촉진하도록 하는 옳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충돌 당사국들이 하루빨리 정치적으로 위기 해결의 물꼬를 트도록 도와 협상 재개에 여건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

5. 인도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인도적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는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인도적 행동은 반드시 중립과 공정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인도적 문제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 민간인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민간인이 교전 지역을 철수하도록 인도주의적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 관련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이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신속하고 안전하며 장벽이 없는 인도적 접근을 제공하여 더 큰 규모의 인도적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 충돌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 유엔의 조정 역할을 지지한다.

6.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보호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국제 인도법(人道法)을 엄격히 준수하고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피하며 부녀와 어린이 등 충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쟁 포

로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을 지지한다. 각측은 이를 위해 더 많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7.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 등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무장공격에 반대한다. 핵안전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위적인 핵사고를 단호히 피할 것을 각측에 촉구한다. 평화적 핵시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

8. 전략적 위험을 줄여야 한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핵전쟁을 해서는 안된다. 핵무기 사용 혹은 핵무기 위협을 반대해야 한다. 핵 확산을 막고 핵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생화학 무기를 연구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9. 곡물의 외부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 각측은 로씨야, 토이기, 우크라이나 및 유엔이 서명한 흑해 식량 운송 협정을 균형 있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중국이 제안한 국제 식량 안전 협력 창의는 글로벌 식량 위기를 해결에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공했다.

10.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 일방적 제재와 극한적 압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안전보장리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한다. 관련 국들은 타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 람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위기를 랭각시키고 발전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11.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각측은 기존의 세계 경제 체계를 확실히 수호하고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위기 류출의 영향을 완화하고 국제 에너지, 금융, 곡물 무역, 운송 등 협력이 방해받고 세계 경제 회복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2. 전후 재건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충돌 지역의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협조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 /신화사

뿌찐, 지구 전체가 미군기지로 점철

뿌찐 로씨야 대통령이 2 월 21 일 정오(현지 시간)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련방의회를 상대로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뿌찐 대통령은 현재 로씨야는 복잡하고 리정표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며 전세계가 급변하는 단계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특별군사행동에 대해 뿌찐 대통령은 로씨야는 모든 임무를 차근차근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뿌찐 대통령은 로씨야는 안보 문제에 대해 서방의 대화에 개방적이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위적인 대응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부로의 확장이였다고 말했다.

뿌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원조는 이미 총 1,500 억딸라에 달하지만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600 억딸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뿌찐 대통령은 미국은 해외에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며 지구 전체가 미군기지로 점철되여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송총국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4 기 제 1 차회의 진행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1차회의가 5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습근평동지가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대표들과 함께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사업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지난 5 년간 중국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밑에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첫번째 백년목표를 달성하고 두번째 백년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로운 로정에 오른데 대해 언급하였다.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중국공산당 제 20 차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꾸준히 투쟁해나갈데 대해 보고는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도간부들을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2022 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집행정형과 2023 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2022 년 중앙 및 지방예산집행정형과 2023 년 중앙 및 지방예산에 관한 결의,립법법수정에 관한 결정 등이 채택되였으며 2023 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2023 년 중앙예산이 비준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페막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지금부터 21 세기중엽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것은 전당과 전국의 인민들의 중요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당 제 20 차대회의 전략적포치에 따라 중국식현대화건설을 속히 추진하며 단결하여 투쟁하고 혁신함으로써 강국건설,민족부흥을 추진하는데서 응당한 기여를 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회의기간 전체회의,주석단회의,주석단상무주석회의들이 있었다.

중앙과 국가기관의 관계부문,중국인민해방군의 관련단위,인민무장경찰부대,각 사회단체의 해당 책임일군들이 개막회의와 페막회의를 방청하였다.(끝)

뻬루와 인도네시아에서 폭우,큰물,산사태

뻬루에서 지난해 9 월 장마철이 시작된 후 3 월 14 일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폭우와 그로 인한 큰물로 61 명이 목숨을 잃고 56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8 명이 행방불명되였다.

1 300 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3 170 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총피해자수는 2 만 1 860 명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642 개의 교실,94 개의 보건시설,188 개의 다리와 638 ㎞이상의 도로가 파괴되였다.

15 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 2 명이 사망하고 4 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파괴되고 철도운행이 중지되였다.(끝)

중국외교부 인류에게 핵오염을 들씌우려는 일본을 단죄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14 일 기자회견에서 인류에게 핵오염을 들씌우려는 일본의 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2 년이 지난 오늘 일본이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핵오염수해양방류계획의 강행추진을 고집하며 그 위험을 전인류에게 들씌우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는 130 여만 t 에 달하며 거기에는 60 여종의 방사성핵종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는 일단 바다에 방류되는 경우 세계해양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헤아릴수 없는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일본이 핵오염수를 제멋대로 바다에 방류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끝)

캄보쟈에서 자연에네르기리용 장려

캄보쟈에서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한 전력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전력생산의 62%이상을 자연에네르기로 충당하고있다.

자연에네르기리용을 장려한 결과 지난해 총 전력공급량이 그 전해에 비해 12.6% 증가하였다고 한다.

현재 푸르사트주에서는 8 만kW능력의 수력발전소건설이 추진되고있다.(끝)

브라질에서 흙사태로 인명피해

브라질의 아마존주 마나우스시에서 13일 흙사태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
사태로 9채의 살림집이 흙속에 묻혔으며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8명이 사망하였다.
현지에서 생존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였다.(끝)

프랑스에서 항의시위

프랑스의 각지에서 11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들에는 약 36만 8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년금개혁안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시위로 국내의 철도운행이 마비되였다고 한다.(끝)

수리아에 대한 반인륜적인 공습만행 단죄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수리아의 알레뽀국제비행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행위를 강력히 단죄하였다.
그는 수리아인들이 지진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때에 민용비행장을 공습한것을 란폭한 반인륜범죄로 락인하였다.
그는 서방이 수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공격들과 관련하여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레바논외무 및 이주민성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공습이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고 가장 초보적인 륜리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침략적성격을 다시한번 보여준다고 규탄하였다.(끝)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분출

인도네시아에서 11일 메라피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재구름이 7㎞ 높이까지 뿜어져올랐으며 용암은 1.5㎞ 되는 곳까지 흘러내렸다고 한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분화구로부터 반경 3~7㎞의 구간에 설정된 위험지역에서 모든 활동을 중지할데 대한 경보가 내려졌다.(끝)

아르헨띠나에서 전례없는 폭염

아르헨띠나에서 전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3월기온을 련일 갱신하고있는데 이것은 62년만에 최악의 기상현상이라고 한다.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주변도시에서 기온이 39~44℃를 기록하고있다.
나라의 중부지역에서 3월 첫주 평균기온은 례년보다 8~10℃정도 높았다.
전례없는 고온현상으로 수도를 포함한 전반적지역에서 며칠째 정전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가물현상은 농산물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가물현상으로 농산물생산량이 대폭 감소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칠보산 내경대의 아침





칠보산의 내칠보구역에 위치한 내경대는 내칠보의 안쪽 경치를 가까이에서 둘러볼수 있다고 하여 내경대라고 부른다.

내경대는 승선대와 탄금대사이 금강골에 위치한 곳으로서 멀리로는 망월대, 무희대와 함께 넘쳐나게 담은 밥그릇같은 반두암, 8만대장경을 꽂아놓은듯한 서책봉, 피아노바위, 례문암, 가마바위 등이 한눈에 안겨오고 가까이로는 타종암과 종각봉, 유람선바위를 비롯한 수많은 기암괴석들을 부감할수 있는 곳에 있다.

내경대, 그 이름 불러보면 이곳에 오르시여 우리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명산이 훌륭히 꾸려진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칠보산은 언제 보아도 천하절경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명산도 세월을 잘 만나야 빛을 내기마련이다.

일만경치를 자랑하는 칠보산,

로동당세월속에 조선의 명산 칠보산은 명산중의 명산, 인민의 명산으로 더더욱 아름다와지고있다.



올해는 왜 음력 2월이 두번 나타날가?

2월 20일은 계묘년 토끼해의 2월 초하루이며 이 2 월 뒤에는 또 음력 2 월이 뒤따른다. 두번의 음력 ‘2월’은 도합 59 일이다.

중국천문학회 회원, 천진시천문학회 리사인 양정은 음력은 중국의 전통 력법으로 일종의 음양합력(阴阳合历)이라고 소개했다. 음력은 달이 차는 것과 기우는 것 즉 삭망의 변화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의 삭망월 길이가 29.53 일이고 양력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한바퀴 도는 것을 회귀년으로 하는바 하나의 회귀년 길이가 365.2422 일이다. 농력(农历)은 음력을 바탕으로 회귀년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달이 차는 것과 기우는 것의 변화를 나타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력의 사계절과 일치하다.

음력은 달이 차는 것과 기우는 것의 변화에 따라 평년을 12개월, 큰달을 30일, 작은달을 29일, 한해를 354일 또는 355일로 정한다. 계묘년 토끼해의 음력 2월은 2월 20일에 시작하여 3월 21일에 끝나는데 30일로 큰달에 속한다.

음력 평년은 회귀년보다 11 일 정도 짧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고대인들은 윤달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음력해의 평균 길이와 회귀년의 길이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19 개 음력해중에 7개의 윤달을 넣어 윤달이 있는 해는 13개월이 있고 윤년이라고 불렀으며 늘어난 달을 윤달이라고 했다. 윤년은 384 일 또는 385 일에 달한다. 19개 음력해와 19개 양력해의 일수는 거의 같다.

윤달을 정확히 어느 달에 두느냐는 24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 윤달은 음력 중기(中气)가 없는 달에 배정된다. 옛날 사람들은 24 절기를 12 절기와 12 중기로 나누었는데 량자가 서로 배렬되여있었다. 음력은 12 개의 중기(中氣)를 각각 12 개월의 표식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삭망월마다 하나의 중기가 있는데 어느 달에 중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 전달의 윤달로 간주하여 력법에 윤달을 설정했다. 계묘년 토끼해의 2 월 윤달은 바로 지난 달인 2 월의 윤달로 2 월 윤달에는 청명 절기만 있고 중기 곡우는 음력 3 월 초하루이다. 이 2 월 윤달은 양력 3 월 22 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29일간이며 소월(小月)이다.

2월 윤달은 비교적 드문데 2004년(갑신년)에 나타난 적이 있고 다음 번에는 2042 년(임술년)에 나타나게 된다.

8월풀은 좋은 당작물



8 월풀을 리용하여 사탕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당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8월풀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년전 해외동포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내온 식물에 친히 《8 월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재배, 번식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써오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월풀을 가지고 사탕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였다.

8월풀의 단맛은 사탕보다 훨씬 높은데 한정보의 땅에서 얻는 8월풀당가루는 수십t의 사탕가루를 대신한다.

8월풀당은 여러가지 식료품들에 첨가제로 쓸수 있고 김치 등에 넣으면 달면서도 오래동안 시여지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작용을 한다.

여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리용되고있다. 이밖에 피부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하여 화장품공업에서 첨가제로 쓰이고있다.

8월풀에서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분쇄한 다음 거친먹이에 첨가하여 집짐승에게 먹이면 먹성이 좋아진다.

8월풀의 재배적지는 모래메흙땅인데 다른 토양에도 심을수 있다.

번식은 종자로도 할수 있고 뿌리싹모로도 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매운 음식의 5가지 좋은점

평소 매운 음식을 즐겨먹지 않는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열이 오르고 여드름이 나며 위장을 자극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고추를 자주 먹는 것이 오히려 몸에 리롭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사망위험 낮춘다

2021년 《미국심장병예방잡지》에 매운 음식 섭취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였다. 분석에 따르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더 길고 심혈관 질환, 암 및 기타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감소된다.

2.당뇨병위험 낮춘다

2019년 《당뇨병잡지(Journal of Diabetes)》에 발표된 2억명 이상 국민들의 견본이 포함된 '중국 음식습관과 대사질환 지도'에 따르면 매운 음식 선호도는 당뇨병위험과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

3.고혈압위험 낮춘다

2021년 7월 북경대학교 공공위생학원 리립명 교수 등 중국 만성질환 전망성 연구항목을 통해 우리 나라 절강성 동향의 약 5.4만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는 30~79 세 성인 약 5.4 만명이 포함되였으며 그중 44.4%는 고혈압이 있고 12.3%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매운 음식을 섭취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녀성에게서만 볼 수 있었다.

4.암위험 낮춘다

2015 년 8 월,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학과 중국의학과학원은 《영국의학잡지》에 3 개 대학이 공동으로 30 세-79 세의 중국인 50 만명을 대상으로 8 년간 실시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조기사망위험이 낮고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특히 암, 심장병, 호흡기 질환의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5.비만, 지방간 개선한다

중경대학 평의원 축지명 교수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캡사이신은 비만, 지방간, 혈당이상, 축상동맥경화 등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지만 그 작용기제에는 차이점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래원: 인민넷

봄철에 즐겨 먹는 나물음식

달래음식 달래는 파과에 속하는 여달래로는 달래김치, 달래무침, 달래장절임, 달래지지개 등을 만들어 먹을수 있다.이른 봄철이면 뿌리채로 깨끗이 씻은 달래를 굵직굵직하게 채친 무우와 섞어 고추가루, 소금, 젓갈을 넣고 고루 버무린 다음 4~5 일동안 익힌달래김치가 별맛이다.또한 달 래를양념장 에 담근달 래 장 절 임 은만들자마자 먹어도 산뜻한 맛이 나고 3~4 시간 뒤에 먹으면달래의 속까지양념물이 배여들어가서 독특한 맛이 더 살아나므로 봄철에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다.





냉이음식 냉이는 배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이다.이른봄에 캐서 뿌리채로 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메워먹으면 입맛이 절로 당긴다.기름에 된장을 두고 볶다가 장국물에 냉이를 넣어서국을 만들면 구수하고 감칠맛이 있다.또한 냉이뿌리를 데쳐낸다음 잘게 찧어 고추장과양념장에 버무린 냉이무침도 봄철음식의 하나로 되고 있다.




백의민족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흰색의 옷을 즐겨 입어온것으로 하여 백의민족, 백의동포로 불리워왔다.

우리 민족이 흰색을 사랑하는것은 밝고 깨끗한것을 사랑한 조선민족의 미감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우리 민족이 흰옷을 입는 풍습은 이미 고대에 기초가 마련되여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면면히 계승되였다. 그것은 고구려시기 무덤벽화들에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있는 모습이 그려진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흰옷 입는 풍습은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에도 계승되였으며 고려시기에 와서는 더욱 성행하게 되였다. 12세기초에 우리 나라에 왔던 한 송나라사람은 자기의 저서에 고려사람들의 옷차림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왕이나 신하들은 물론 농민들과 상인들도 다 흰 모시로 지은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당시 고려에서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많이 입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흰옷을 입는 풍습은 계속 계승되였다.

우리 민족이 줄곧 흰색을 숭상하면서 흰옷을 입어왔기때문에 근대에 조선에 왔던 수많은 외국인들은 조선사람들을 가리켜 《백의민족》이라고 하였다. 19세기에 조선을 다녀간 많은 외국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흰옷을 입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사람이 모이는 시장은 마치 목화밭같이 하얗다.》고 전하였다.

흰옷을 숭상하여온 우리 민족의 전통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흰옷을 없애버리려고 책동하였을 때에도 우리 인민은 이에 항거하여 자기의 민족옷을 지켜왔다.

3.1 인민봉기때에는 온 나라 인민들이 흰옷을 입고 일제를 반대하는 시위에 떨쳐나섬으로써 일제에게 백의민족의 단결력과 항거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민족의 단일성과 정서가 반영된 흰옷을 즐겨입은것으로 해서 조선민족은 백의민족으로 불리워왔다.

오늘 조선인민은 대를 이어 전해오는 미풍량속을 귀중히 여기면서 시대적요구에 맞게 흰색이나 연하고 부드러운 색갈의 천으로 옷을 만들어 해입는것을 즐겨하고있다.






평양의 애국명기 계월향

수난의 임진조국전쟁사에는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꽃다운 젊음을 바친 평양의 애국명기 계월향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여있다.

계월향은 평양관청에 소속된 천한 신분의 관기였다.

1592 년 6 월 중순 평양성은 왜적에게 강점되였다.

계월향은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성안에 남게 되였다.

평양성을 강점한 왜적들은 평양의 모든것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불살랐다.

그것을 목격한 평양성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나 기생에 이르기까지 적들에 대한 항거정신과 보복심에 불타있었다.

(아! 내가 그토록 심혼을 바쳐 사랑한 나의 평양이 왜적의 더러운 발굽에 이렇게 짓이겨지고있구나.)

계월향도 평양이 적들에게 유린되고있는것을 차마 그냥 지켜볼수 없었다.

그는 드디여 나라와 겨레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평양성에서 왜적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에 한몸 바칠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월향은 시비 옥계와 함께 적들의 주목을 끌만 한 련광정에 올라가서 기회를 기다렸다.

마침 적장이 이곳을 지나다가 계월향을 발견하고 진중으로 랍치해갔다.

월향은 적장의 시중을 들어주는척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월향은 김응서가 별장으로 임명되여 평양성밖에서 적들과 싸우고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월향은 일찌기 김응서가 평양군영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있었다.

그는 평안도 룡강출신으로서 남달리 힘이





세였고 몸은 표범처럼 날래였으며 지략이 뛰여나 이름이 자자하였다.

월향은 이름난 무관 김응서를 무척 따랐고 김응서 또한 평양의 제일가는 명기인 계월향을 몹시 사랑하였다.

평양이 왜적들에게 강점된 후 김응서는 룡강, 강서, 증산 등지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평양 서쪽에 진지를 설치하고 날마다 군사들과 함께 훈련도 하고 군사정찰도 하고있었다.

우연히 이 소식을 알게 된 계월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놈들의 움직임을 김응서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느날 왜놈들은 을밀대에서 술놀이를 벌려놓고 마시며 떠들었다.

월향은 그 틈을 리용하여 성안의 적들의 군사장비와 군사배비상태 등을 적은 쪽지를 연에 달아 성밖으로 날려보내였다. 계월향이 위험을 무릅쓰고 보낸 적정자료들은 평양성탈환준비를 다그치고있던 아군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1592년 8월 아군은 평양성탈환을 위해 적에 대한 일대 공격을 시도하였다. 평양성탈환을 위한 작전을 더욱 면밀히 하기 위하여 김응서는 직접 적정을 탐지하러 홀몸으로 성안으로 들어와 계월향을 만났다. 그리고 적장을 처단하여 왜놈들을 혼란시킨 다음 평양성탈환싸움을 승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책과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그런데 적장을 죽이는 일이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이놈은 의심이 많아 늘 자기가 자는 방의 네면에 모기장을 두르고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만 다쳐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그리고 방안에 층층장막을 두르고 그가운데 놓인 평상우에서 자는데 머리맡에는 대검을 세우고 전신에 쇠비늘을 덮고있으므로 적장을 죽인다는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계월향은 이미 나라에 한몸 바치기로 각오한 이상 두려울것이 없었다.

김응서와 약속한 날에 이르러 월향은 적장에게 밤늦도록 술을 먹이였다. 아양과 교태가 넘치는 계월향의 수에 넘어가 적장은 이날 밤에 많은 술을 마시였다.

눈이 풀려 게슴츠레해진 적장은 차츰 졸기 시작하더니 얼마후에는 그자리에 곤드라지고말았다.

그것을 본 계월향은 살그머니 일어나 솜뭉치로 방울주둥이를 다 틀어막은 후 지체없이 밖으로 뛰여나가서 김응서를 찾았다.

김응서는 월향의 신호를 받자 곧 장검을 빼여들고 달려와 적장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순간 적장의 모가지가 땅에 떨어졌다.

김응서는 칼을 허리춤에 찌른 다음 계월향의 손목을 잡아 이끌며 밖으로 뛰여나갔다. 그들이 북쪽성벽을 넘으려고 모란봉수림속으로 한창 달릴 때 어느새 그들을 발견한 왜놈들이 추격해왔다.

왜병들이 다급히 뒤쫓으니 지칠대로 지친 월향은 더 갈 수가 없었다.

형세는 급박하였다. 월향은 응서에게 이러다간 둘다 죽을 수 있으니 자기를 죽이고 빨리 빠져나가 원쑤를 족치고 평양성을 탈환해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그러나 김응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위기일발의 그 시각 김응서도 어쩔새없이 월향은 분연히 장도칼을 빼들더니 자기의 목을 찔러 절명하였다. 식어가는 월향의 시신을 안은 김응서의 눈에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고있었다.

김응서는 서리발치는 장검을 뽑아들고 가까이 다가온 적병들을 찍어넘기고 성벽을 날아 넘었다.

이처럼 평양의 딸 계월향은 악귀같은 왜적들을 무찌르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생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계월향의 고결한 희생정신은 평양성탈환싸움에 떨쳐나선 평양성사람들을 크게 고무추동하였으며 마침내 군민이 힘을 합쳐 일본침략자들을 물리치고 평양성을 되찾을수있었다.

평양성사람들은 왜적을 몰아내는데 크게 공헌한 계월향을 추모하여 《의렬사》라는 사당을 짓고 그의 애국충정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

오늘도 평양에는 그 비석이 원상대로 보존되여있으며 계월향이 살던곳을 《월향동》이라 부르고있다.





조선의 민족료리



약밥



▶ 재료

찹쌀 50g, 밤(속살) 50g, 대추 20g, 은행씨(속살) 20g, 곶감 20g, 잣 10g, 계피가루 2g, 참기름 5g, 사탕가루 30g, 꿀 20g, 간장 5g

▶ 만드는 방법

1. 찹쌀은 깨끗이 씻어 4시간정도 물에 불구었다가 물을 뺀 다음 시루에 안쳐 센 김에서 1시간이상 고슬고슬하게 쪄낸다.
2. 밤은 속껍질까지 벗겨 소금물에 잠그었다가 물에 씻은 다음 큰것은 두쪽을 내고 작은것은 그대로 쓴다. 대추는 깨끗이 손질하여 씨를 뺀 다음 두쪽으로 쪼갠다. 곶감은 씨를 뽑고 대추크기만 하게 자른다. 은행씨는 살짝 닦아서 속껍질까지 벗긴다. 잣은 까서 속껍질을 벗긴다.
3. 사탕가루 15g은 단 냄비에서 녹인다. 이때 진한 밤색이 나면서 거품이 생기면 물을 두고 향색을 만든다.
4. 찐 밥을 식기 전에 큰 그릇에 담고 참기름, 꿀, 사탕가루, 계피가루를 넣어 밥알이 서로 붙지 않게 골고루 버무린 다음 밤, 대추, 곶감, 은행씨, 잣, 향색, 간장을 넣고 다시 버무려서 단지에 넣는다. 그 다음 보를 씌우고 뚜껑을 덮는다.
5. 가마에 단지의 70%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다음 뚜껑을 덮고 8시간이상 서서히 중탕한다.

전약

▶ 재료

소발통	2개
소가죽	100g
꿀	1kg
마른생강	15g
계피가루	6g
정향가루	3g

▶ 만드는 방법

1. 소발통과 소가죽을 삶으면서 거품과 기름을 걷어낸다.
2. 소발통과 가죽이 푹 익으면 채에 밭아서 계피가루, 마른생강가루, 정향가루, 꿀을 두고 넓은 그릇에 담아 식힌다.
3. 굳어지면 썰어 낸다.





배살쟁반(어북쟁반)

▶ 재료

소배살 1kg, 닭알 2알, 배 1알, 간장 50g, 참기름 20g, 파 30g, 마늘 15g, 참깨 5g, 고추가루 5g, 실고추 0.5g

▶ 만드는 방법

1. 소배살은 삶아 얇은 편으로 썬다.
2. 간장, 참기름, 다진 파와 마늘, 참깨, 고추가루로 양념장을 만든다.
3. 쟁반에 고기, 쪽으로 썬 닭알, 채친 배를 담고 실닭알, 실파, 실고추로 고명하여 양념장과 함께 낸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 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